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보도영상 비교 연구

- KBS ·MBC ·JTBC의 종합뉴스를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학과

고 진 현

2015년 2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보도영상 비교 연구

- KBS ·MBC ·JTBC의 종합뉴스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고 영 철

고 진 현

이 논문을 언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014년 12월

고진현의 언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

위 원 _____ ㊞

위 원 _____ ㊞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4년 12월

A Comparative Study on Broadcasted Images on the Sinking of MV Sewol

- Focused on Combined News at KBS ·MBC ·JTBC-

Jin-Hyeon Ko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Churl K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Journalism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014.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제2절 선행연구고찰 ····· 3
1. 재난방송보도에 관한 연구 개관 ····· 3
2. 세월호 방송보도에 관한 연구 동향 ····· 8
3.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의의 ····· 11

제2장 이론적 배경 ····· 13
제1절 재난보도의 개념 정의 및 보도준칙 ····· 13
1. 재난보도의 개념 정의 및 기능 ····· 13
2. 재난보도 준칙의 제정 배경 및 의의 ····· 15

제2절 보도영상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논의 ····· 22
1. 보도영상의 기능 및 역할 ····· 22
2. 보도영상과 내용의 연관성 ····· 24

제3절 보도영상 출처에 관한 논의 ····· 26

제3장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29
제1절 연구문제 ····· 29
제2절 연구방법 ····· 30
1. 연구대상과 표집방법 ····· 30
2. 분석유목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 33

제3절 신뢰도 검증 ····· 4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4절 분석결과 ····· 42
1. 세월호 관련 방송보도의 일반적 특성 ····· 42
2. 보도영상 주제에 대한 분석결과 ····· 49
3. 보도영상 출처에 대한 분석결과 ····· 53
4. 인터뷰 유형 및 취재원에 대한 분석결과 ····· 55
5. 보도주제 및 보도논조에 대한 분석결과 ····· 59
6. 보도영상과 뉴스내용의 일치도에 대한 분석결과 ····· 61
7. 초상권 침해에 대한 분석결과 ····· 63

제4장 결론 및 제언 ····· 64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64

제2절 결론 및 함의 ····· 67

제3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 71

<참고문헌> ····· 72

<Abstract> ····· 78

<부록: 코딩지> ····· 81

<부록: 보도영상 컷(Cut) 분류> ····· 8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표 목 차]

<표 2-1> 보도준칙 ····· 17
<표 2-2> 세월호 참사보도 가이드라인 10개항 ····· 18
<표 2-3> 언론 5개 단체 공동 재난보도준칙 ····· 20
<표 3-1> 코더 간 항목별 신뢰도 ····· 41
<표 3-2> 방송사, 방송일, 방송일자, 방송시점 ····· 42
<표 3-3> 보도영상 주제(대분류) ····· 43
<표 3-4> 보도영상 주제(소분류) ····· 44
<표 3-5> 인물식별 유무 ····· 44
<표 3-6> 보도영상 출처 ····· 45
<표 3-7> 인터뷰 유형 ····· 46
<표 3-8> 취재원 출처 ····· 46
<표 3-9> 보도주제 내용 ····· 47
<표 3-10> 아이템 길이, 총 컷수, 보도방향, 내용일치도 ····· 48
<표 3-11> 방송사간 보도영상주제 ····· 49
<표 3-12> 방송사간 보도영상 주제별 컷수 ····· 50
<표 3-13> 방송사간 아이템 길이 및 총 컷수 ····· 51
<표 3-14> 방송사간 방송일자별/방송시점별 보도영상주제 ····· 52
<표 3-15> 방송사간 보도영상 출처 ····· 54
<표 3-16> 방송사간 방송일자별/방송시점별 보도영상 출처 ····· 54
<표 3-17> 방송사간 인터뷰 유형 ····· 55
<표 3-18> 방송사간 취재원 출처 ····· 56
<표 3-19> 방송사간 방송일자별/방송시점별 인터뷰 유형 ····· 57
<표 3-20> 방송사간 방송일자별/방송시점별 취재원 출처 ····· 5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3-21> 방송사간 보도 주제 ····· 59
<표 3-22> 방송사간 방송일자별/방송시점별 보도방향 ····· 60
<표 3-23> 방송사간 내용일치도 ····· 61
<표 3-24> 방송사간 방송일자별/방송시점별 내용일치도 ····· 62
<표 3-25> 방송사간 초상권침해 보도비율 ····· 63

[그 림 목 차]

<그림 1> 앵커-현장기자 ····· 31
<그림 2> 2분할 컷 ····· 32
<그림 3> PIP 화면 ····· 32
<그림 4> 앵커-기자 스튜디오 ····· 33
<그림 5> 유가족 현장 인터뷰 ····· 3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 국 문 초 록 >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보도영상 비교 연구
- KBS ·MBC ·JTBC의 종합뉴스를 중심으로 -

재난방송은 재난 발생 시 국민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 중 하나이다. 국민들은 재난방송이 방재와 피해 수습을 위한 정보전달 수단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방송사들이 보여준 보도행태는 과거에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방송사들마다 의제 설정에 대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뉴스보도의 신속성만을 추구한 나머지 방송의 공공성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보도 준칙을 근거로 과거 대형사고 발생 시 꾸준히 제기되었던 재난보도영상의 선정성과 자극성을 세월호 침몰사고 재난보도를 바탕으로 귀납적 방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와 공영방송 MBC, 종합편성채널 JTBC 저녁 종합뉴스를 중심으로 세월호 관련 방송보도의 일반적 특성을 통해 재난뉴스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세월호 보도 관련 방송사간 보도영상 주제, 보도영상 출처, 보도영상의 인터뷰 유형 및 취재원의 차이 그리고 보도영상과 뉴스내용과의 일치도를 방송시기별로 나눠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방송사별로 보도주제 및 보도방향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초상권 침해를 하지는 않았는지, 빈도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세월호 관련 본 연구에서 사고 발생일인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 분석된 총 영상은 963개였으며, 방송사별로는 'MBC'(37.4%)가 가장 많았고, 'KBS'(34.1%), 'JTBC'(28.6%) 순이었다. 보도영상 주제를 살펴보면 '바다사고현장'을 가장 많이 다루었다. '바다사고현장'의 세부항목은 '세월호 선내', '세월호 침몰', '민/관/군 수색', '선수(뱃머리)화면' 영상으로 보도영상주제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이다. 따라서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에서 흥미 위주의 보도영상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도영상의 출처는 주로 '카메라 기자'와 '정보원 제공'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기자'의 비율은 JTBC가 가장 높았고, '정보원 제공'은 상대적으로 MBC가 높게 나타났다. 정보원 제공 영상은 영상소스의 한계로 인해 방송사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취재원 출처는 ‘기자취재‘ 유목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다음으로 ’중앙정부‘ 유목 순으로 나타났다. ‘기자취재’ 유목으로 인해 인터뷰 유형에서는 ‘공식적 인터뷰’ 보다는 ‘비공식적 인터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방송3사 중 JTBC가 ‘기자취재’ 비중이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앵커-현장기자 비중이 높은데서 기인한 결과로써, 재난 시 취재원 섭외의 어려움을 현장보도(앵커-현장기자)로 대체했음을 알 수 있다. 취재원 출처에서 ‘중앙정부’ 유목이 두 번째로 높은 이유는 정보의 공신력에 대한 신념과 취재의 편이성 때문이다.

보도영상과 뉴스내용의 일치도는 컴퓨터 그래픽(C.G)과 문서, 미니어처 등의 보도영상을 설명하는 뉴스기사로 인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주제는 방송사 3사 모두 ‘사고관련 조사’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각 방송사들마다 사고원인에 대해 사고발생 초기에는 ‘선박직 직원’, 사고발생 이후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된 보도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도방향도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상권 침해 보도비율에서는 방송 3사 모두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인물 식별이 가능한 경우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방송사별로는 JTBC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방송이 아닌 시청자를 위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기자들이 재난보도준칙을 읽어본 경험이 없거나 제대로 관련 조항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로 판단되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반성으로 언론 5개 단체 공동 재난 보도준칙을 마련했다.

TV 뉴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타 매체에 비해 크기 때문에 재난을 어떤 방식으로 보도하고, 어떤 부분을 선택하고 부각시키는지에 따라 수용자의 인식도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방송사들은 언론윤리강령 및 보도준칙에 근거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배려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서 정보전달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주제어 :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영상 주제, 보도영상 출처, 재난보도준칙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014년 4월 16일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로 운항 중 전라남도 진도 부근에서 침몰했다. 세월호에는 안산 단원고 학생 324명, 교사 15명, 일반 승객, 승무원 등 모두 476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172명만이 구조됐고, 300여 명이 넘는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가 불가피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기 때문에 많은 국민은 슬픔에 잠겼고 분노했다.

사고 발생 이후 세월호 국민대책회의가 만들어졌고, 세월호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만인 서명 등이 이어졌다. 결국 지난 11월 7일 세월호 침몰사고 205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1]이 여·야의 힘겨루기 끝에 합의를 이뤄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그 성과는 미진했다.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규명, 4월 16일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최후의 보루였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 그리고 외신들은 속수무책인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과 국가적 문제해결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고, 잦은 오보와 선정적인 보도를 한 언론도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재해나 재난보도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미디어는 방송이다. 왜냐하면 신문이 아무리 사건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신속하게 취재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텔레비전에서 제공하는 영상과 신속성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최정호·강현두·오택섭, 2005). 이준웅과 황유리(2004)도 우리사회에서 TV뉴스는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영향력이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TV는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친숙하고 영향력이 있는 매체이며, 이에 따라 국민들은 재난발생시 재난방송이 방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해 왔다(이연, 2014). 그러나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재난보도 또한 기존에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점이 되풀이됐다는 점에 있어서 눈여겨봐야할 부분이다. KBS,

---

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843호, 2014.11.19.,제정]
제3조(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50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7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① 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MBC, YTN 등 방송사들은 사고 초반부터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자막을 방송에 내보냈으나 몇 분후 오보로 밝혀졌고, MBN보도에서는 “현장 정부 관계자가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는 민간 잠수사의 인터뷰 영상을 내보냈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KBS는 “선내 엉켜있는 시신 다수확인”이라는 자막과 함께 진도 해상에 나가있는 구조당국(현장에 잠수해 들어간 잠수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으나, 오보로 밝혀져 “시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라는 정정자막을 내보내기도 했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오보는 사회적으로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언론사들의 보도경쟁으로 많은 오보를 생산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재차 주목해봐야 할 사실이다.

또한 세월호 재난방송의 자극적 영상 활용에 대해 분석한 한국경제신문 텐아시아[2] 기사에 따르면, KBS <뉴스9>은 울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클로즈업해 강조했고, MBC <뉴스데스크>는 가족들의 모습을 불필요하게 반복했으며, SBS <8시 뉴스>는 학부모가 발로 문을 차거나 울부짖으며 아들을 찾는 모습 등 자극적인 영상을 내보냈다고 하였다. 반면에 JTBC <뉴스9>은 희생자 가족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여 비교적 절제된 보도를 했다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JTBC <뉴스9>은 평소 평균 1%대의 시청률로 타 방송사 뉴스에 비해 저조하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는 4%대의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리서치뷰>[3]조사에서도 JTBC <뉴스9>이 지상파 방송사들을 제치고 가장 신뢰받는 방송사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재난방송에서의 오보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의 활용은 재난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채 의혹과 불신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오보를 통한 혼란은 실낱같은 구조 가능성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사고피해자 가족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과 불신을 유발시킬 수 있고, 이는 곧 구조 활동의 지연과 같은 구조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김경환, 2014).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서해 페리호 침몰,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등 대형재난 사고를 경험해 왔지만 재난보도영상은 여전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경향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반성으로 최근 언론단체들은 보도영상에 대한 보도준칙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피해의 최소화(제5조), 예방 정보 제공(제6조), 취재원에 대한 검증(제12조), 선정적 보도 지양(제15조), 피해자 보호(제18조), 신상공개 주의(제19조), 과거 자료사용 자제(제23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

2) 세월호 침몰 다룬 KBS MBC SBS JTBC 저녁뉴스 비교 ⑤자극적 영상 사용 여부
http://tenasia.hankyung.com/archives/246469

3)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실시한 방송사 신뢰도 조사
http://mediatoday.co.kr/news/articlView.html?idxno=11682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재난보도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제공과 사후대책, 사전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신속성을 추구하는 방송매체라 하더라도 재난상황에서는 보도경쟁이 아닌 공공성의 추구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뉴스가 갖는 신속성으로 인해 속보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경향은 재난보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영상과 뉴스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와 공영방송 MBC, 종합편성채널 JTBC 저녁 종합뉴스이다.

주요 분석 관점은 재난보도영상이 어떠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보도되고 있고, 보도영상과 뉴스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보도영상을 제보하는 정보원은 누구인지 등 보도영상의 실상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뉴스내용의 주제와 보도방향, 취재원의 출처 등 기사내용도 함께 분석함으로써 세월호 사고에 대한 재난보도를 보도영상과 뉴스내용의 분석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 2절 선행연구고찰

1. 재난방송보도에 관한 연구 개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재난방송보도에 관한 연구

여기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재난관련 보도연구의 결과물을 고찰함으로서 재난보도의 특성이 무엇이고 개선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강진숙(1996)은 「재난보도의 현실구성방식 연구」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관한 TV뉴스보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제는 1차 범주로 '현장진술', '원인/책임규명', '사후대책', '기타'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고, 다시 2차 범주로 '현장진술'은 구조/지원상황, 피해자상황으로 '원인/책임규명'은 붕괴원인, 재난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사후대책'은 정부차원, 서울시 차원으로 각각 범주화 하였다. 분석결과, 현장진술 범주에 속하는 구조/지원상황, 피해 관련자 상황에 큰 비중을 두고 보도하였다. 이는 재난보도에 있어 상황에 대한 단순전달보도에 치중하는 저널리스트의 보도태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연구자는 재난보도에서 사건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 보다는 주로 수사적 접근에 의존하고 있어 재난에 대한 위험인식을 심층적 해석의 수준으로 주도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수준으로 이끄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였다.

진양혜(2003)는 「텔레비전의 재난보도에 관한 연구 :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의 사례분석」에서 보도유형은 상황 진행, 원인, 대책, 예방, 일화적 보도,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분류 시에는 각 항목이 정확하게 배타적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우선순위를 정했다. 동일 기사 내용이 원인과 상황진행을 모두 포함한 경우 앵커의 리드멘트의 내용이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방송3사 모두 '상황진행', '예방', '원인'의 순으로 보도량이 많았으며 '상황진행' 보도는 KBS(61.6%)가 MBC(54.0%)와 SBS (52.8%)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황진행' 보도량이 가장 많다는 것은 재난보도 역시 재난이라는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이라는 위기 상황에서의 언론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사건 자체 보다는 사건의 이면과 이후에 대한 보도에 더욱 중점을 두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경미·최낙진(2008)은 「태풍 '나리' 관련 제주지역의 재난방송보도 분석」에서 태풍 전후에 따른 핵심주제 유형을 사전대책, 현장보도, 원인/책임규명, 사후대책 등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현장보도가 577건(79.5%), 사후대책이 116건(16.0%), 원인/책임규명 24건(3.3%), 사전대책 9건(1.2%)을 나타났다. 시기별로 태풍이전에는 사전대책 6건(31.6%)과 현장보도 13건(68.4), 태풍당일에는 현장보도 21건(95.5%), 원인/책임규명 1건(3.4%)을 보도하였다. 태풍이후에는 현장보도가 543건(79.3%), 사후대책 116건(16.9%), 원인/책임규명이 23건(3.4%)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풍이전의 사전예방 보도나 태풍당일의 상황보도, 대처방안 등의 보도보다는 재난이후의 사후보도에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난에 대한 원인과 상황, 향후대책 등 재난의 전체적인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도했다라기보다는 재난상황의 단순정보전달과 이후의 보상에 대한 대책마련 등 임기응변식 보도로 일관했음을 지적한다.

김희철(2011)은 「천안함 사건에 관한 방송보도 비교연구」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모든 뉴스기사를 수집하여 보도의 내용을 10개의 유목(사건행위, 사건묘사, 방송사 의견, 원인 규명, 책임 문제, 정계 동향, 차후대책, 사후 영향, 실종자·유가족 동향,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방송 3사를 통틀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목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실적 행위자체, 경위 등을 서술한 '사건 행위' 유목이며 다음으로는 '원인 규명', '정계 동향' 과 관련된 유목 순으로 나타났다. 위 세 가지 유목이 전체 보도문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방송 3사 모두에서 많이 다루어진 상위분류로 나타났다. 천안함 사건 발생 초반에 사건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 3사 모두가 사건 발생 자체와 사건 현장 묘사, 사건 원인에 대한 추측 또는 예측성 보도를 집중적으로 방송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을 방송사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양영신(2012)은 「일본대지진 보도에 대한 방송사의 뉴스 프레임 분석 연구」에서 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난 뉴스의 보도 프레임 유형을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결과 '형식적 프레임'은 방송사들 모두 '흥미중심 프레임'으로 구성했고 '내용적 프레임' 역시 '자극적 선정 프레임', '단순사실 전달 프레임', '감성적 프레임'으로 구성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에 관해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보도하기 보다는 재난상황을 극화시키며 재난을 단순히 흥밋거리로 치부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주제별 유목들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재난보도에 대한 연구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들은 사고 상황 진행 보도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자극적인 소재를 반복해서 생산해내면서 경쟁적인 보도에 치중했다.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책과 관련된 정보를 심층적으로 보도하지 못한 채 단순하고 피상적인 보도를 하는데 그치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뉴스만을 전달했다.

따라서 재난보도는 단순히 재난 상황 그 자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대피 등 피해 증가를 막기 위한 통제기구의 정보 전달과 유사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예방 역할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재난보도영상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재난보도영상에 대한 연구로는 이성림(1996), 이화섭(2001), 송종길(2003), 이승열(2004), 백선기·이옥기·이경락(2012)의 것이 있다.

이성림(1996)은 「재난보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삼풍 백화점 붕괴사고를 통해 방송은 재난보도 수용자들의 알권리와 피해 당사자들의 인권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초상권 침해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고당일의 18시부터 24시까지의 KBS 뉴스와 다음날 9시뉴스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초상권과 관련한 분석은 모두 여덟 가지의 유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피해자의 화면등장 시간 2)근접촬영정도 3)신체노출정도 4)등장인물의 성 5)카메라 위치 6)해당영상의 반복정도 7)촬영장소 8)본인식별정도 등이다. 분석대상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화면은 구조된 부상자를 들것에 옮겨지거나 업혀 구급차나 헬기 등에 실리는 모습이다. 연구자는 무방비 상태인 부상자들을 방송사들이 근접 촬영했고 반복적으로 영상을 사용했다는 점과 사고소식을 접한 가족이 현장이나 병원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거나 울며 괴로워하는 모습이 방송되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재해 시 방송매체가 알권리와 공익이라는 정당성을 근거로 현장에 접근하지만 동시에 재해라는 상황은 자신이 고통 받고 있는 모습이 노출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화섭(2001)은 「재난방송의 폭력적 영상연구」에서 9.11 미국 테러 영상을 중심으로 국내 공중파 TV뉴스 보도와 미국의 ABC, 일본의 NHK, 영국의 BBC 뉴스 보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TV뉴스의 폭력성과 선정성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했다. 분석은 9.11 테러 참사 당시 선정적인 화면을 3종류[4] 1)충돌 2)붕괴 3)CG 로 한정하고 출현빈도를 조사했다. 매 뉴스 아이템을 날짜별 아이템 별로 해당화면의 출현 빈도를 세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분석결과 국내외 TV뉴스의 폭력적 영상 노출 총 빈도는 KBS 243 >SBS 199 >MBC170 >NHK 35 >BBC 28 >ABC 25회 순이다. 폭력적 영상의 1 시간 당 노출빈도는 SBS 26.12 >KBS 23.25 >MBC 19.04 >BBC 6.86 >NHK 4.56 >ABC 4.55회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공영방송은 물론 미국의 상업방송도 한국보다 뉴스 영상 구성에서 폭력적 영상을 절제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ABC와 국내 공중파 TV 3사의 폭력적 영상 평균 노출빈도에서는 ABC가 25회, 국내 방송 3사는 204회로 국내 공중파 3사 평균 노출빈도는 ABC보다 8배 이상 높았다. 1 시간 당 노출빈도는 국내 TV 방송사 평균이 22.7회, ABC가 4.6회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외국의 방송사들은 유래 없는 대형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방송사와는 달리 재난보도의 영상 재구성에 있어 신중을 기하려는 태도를 취했다. 반면에 국내 TV 뉴스의 시각 프레임은 아이템의 서사구조나 텍스트와 큰 관계없이 충격적 영상을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전형적인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송종길은(2003)은 「대구지하철 화재관련 뉴스 보도 분석」에서 TV뉴스는 인쇄매체와 달리 영상과 음향을 동반하기 때문에 자극적 또는 선정적인 경향을 보이기 쉽고 특히 대규모 재난사고의 경우, 피해 상황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슬픔이나 피해의 참혹함이 강조되기 쉽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보도영상의 경우 보도된 화면이 얼마나 선정적인 화면을 사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대구지하철화재사고를 보도한 방송3사의 TV뉴스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보도화면의 유형을 1)부상자 구조화면 2)부상자 치료 화면 3)부상자 가족 및 유가족 오열 장면 4)지하철 내부 잔해 및 역사 내부 5)유품 6)피해자 사체 7)사고재연 장면 8)CCTV 자료화면 9)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사용된 영상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시기별(사고초기, 사고수습기, 사고마무리)로 사용된 선정적 영상의 유형 및 보도된 주제(사고종합, 사고수습/대책, 사고관련조사, 안전대책점검, 휴먼에피소드, 기타 등)에 따른 선정적 영상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하철 내부 잔해 및 역사 내부 장면이 약 25%, 부상자 가족 및 유가족

4) 1)충돌 : 납치된 여객기가 쌍둥이 건물을 들이받는 컷(Cut).
2)붕괴 : 쌍둥이 건물 또는 부속건물이 붕괴되는 컷.
3)CG : 충돌과 붕괴 장면을 컴퓨터 그래픽(C/G)으로 재구성한 영상.

오열장면 약 19%, 피해자 사체 약 17%, 부상자 구조 장면 약 12%, 부상자 치료 장면 약 7%, 사고재연 장면 약 6%, CCTV 이용 약 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철 내부 잔해 및 역사 내부, 유품 및 피해자 사체 등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화면이 전체 453건의 사고에 대한 보도 화면 중 219건이나 쓰여, 거의 50%에 가까운 화면들이 참혹한 사고의 피해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주제별 선정적 영상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지하철 내부 잔해 및 역사 내부의 모습을 보여준 화면이 사고종합(18%), 사고수습/대책(25%) 그리고 사고관련조사(38%)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휴먼에피소드는 부상자 가족 및 유가족 오열 장면(44%)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내부 잔해 및 역사 내부에 대한 장면이 가장 많이 사용된 점은 보도 주제와 상관없이 참사가 일어난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다. 분석시기별 선정적인 영상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보도 주제별 분석결과와 유사한 화면 사용 유형이 나타났고 각 시기에 따라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화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시신 수습이 채 되지 않은 전동차 객차의 내부 모습을 보여준 화면이 많이 사용된 것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려나 사건 자체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승열(2004)은 「TV 재난보도영상의 기호학적 연구」에서 재난보도영상 사례의 영상코드를 분석하여 재난보도영상에서 채택하고 있는 영상제작 기법을 분석, 영상구성이 어떤 형식적 의미로 나타났는지 연구하였다. 영상분류는 카메라 시계, 움직임, 높이에 따른 샷의 종류와 시점에 따른 앵글의 유형 그리고 그에 따른 의미를 통해 재난보도영상에서 구성방식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초기 사고의 개요와 피해상황 보도영상에서 현장의 생생함을 강조하는 불안정한 샷(shot)과 사고의 긴박함을 시청자들에게 주입시키는 주관적인 핸드헬드 촬영기법[5]이 많이 사용되었고, 유가족의 감정을 묘사하는 클로우즈업(close up)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편향된 감정적 수용을 유도하여 재난 보도과정 전반에 걸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수용을 어렵게 만든다.

백선기·이옥기·이경락(2012)은 「재해방송 보도에 대한 국가별 채널간 보도 태도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언론이 재난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재난보도영상이 객관적으로 보도를 했는지, 재난의 피해를 과장하지는 않았는지 연구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틀 1)영상반복 2)인터뷰 표현 3)영상화면 포맷 4)자막의 크기와 색깔 5)그래픽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본의 NHK와 미국의 CNN TV는 한국의 KBS<뉴스9>보다 일본의 대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 참사에 대해 비교적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했다. NHK는

5) 핸드헬드(들고 찍기) 촬영기법의 사전적 의미는 카메라가 고정된 받침대나 기계적 안전 장치에 부착되지 않았음을 현저하게 느낄 수 있는 영화 촬영 방식을 말한다. 불안정한 영상의 상태를 가리키며, 영화에 우발적이고 분방한 스타일을 부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현장을 대개 멀리서 촬영하고, 희생자의 시신이나 유가족의 오열 등의 화면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훈련된 매뉴얼에 따른 정보 전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CNN 방송은 영상화면을 통해 차분하게 피해규모를 전하려 했고, 자막을 통해 재난사태의 심각성을 전달하였다.

반면 KBS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울부짖음과 고통 상황들을 근거리에서 촬영하여 신체와 배경 전체를 보여주는 화면을 사용하였고, 공식적인 기관의 발표와 같은 인물을 보여줄 때는 상반신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화면을 사용해 이성적이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KBS는 원자로의 폭파 장면들을 수없이 반복했으며, 피해자나 사상자들의 규모와 범위를 과다하게 보도했다며, NHK와 달리 한국의 재난보도준칙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런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국내 TV방송사들은 재난보도영상에서 폭력성과 선정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클로우즈업(Close up)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초상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재난보도영상은 인권이나 초상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보도해야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세월호 방송보도에 관한 연구 동향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약 8개월 동안에 걸쳐 이를 주제로 수차례의 세미나[6]가 개최되고 여러 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본 연구자의 능력한계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6) •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세월호 참사와 방송재난보도 개선 방향', 2014년 4월 25일.
• 한국소통학회 세미나, '세월호 침몰 사건에 나타난 소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년 4월 28일.
• 자유경제원 세미나, '세월호 참사, 재난기 언론의 역할을 다시 묻는다', 2014년 5월 13일.
• 사회디자인연구소,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정의연대, 정치경제연구소 공동세미나, '세월호와 대한민국', 2014년 5월 15, 22일.
• 관훈클럽세미나, '재난보도의 현주소와 과제', 2014년 5월 21일.
•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공영방송 KBS의 위기-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2014년 5월 29일.
•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세월호 참사 보도의 문제와 정책적 대안', 2014년 6월 12일.
• 한국방송학회<문화연구 연구회>세미나, '4.16의 의미와 문화연구에 대한 반성적 인식', 2014년, 7월 7일.
• 한국방송카메라기자 세미나, '재난보도영상취재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년 9월 19일.
• 언론정보학회 세미나, '저널리즘의 신뢰 회복: 언론인 재교육 시스템 구축과 비영리 저널리즘 활성화 방안', 2014년 9월 25일.
• 한국해법학회 특별 세미나, '세월호 관련 법안', 2014년 9월 29일.
•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세미나, '한국 언론의 재난보도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모색', 2014년 10월 24일.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세미나, '세월호 참사와 지구적 위기에 대한 생태신학적 성찰', 2014년 11월 14일.
• 한국방송학회<문화연구분과>, 한국언론학회<문화젠더연구회>, 한국언론정보학회<문화정치연구분과> 문화연구분과 학술세미나, '세월호 참사와 문화연구', 2014년 12월 19일.

가운데 보도영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방송뉴스 텍스트와 신문 보도를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주장한 연구자들의 관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KBS 최연송 기자는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방송사들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취재원(유족과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지 않고, 자극적이고 드라마틱한 보도영상을 사용하였으며, 사건·사태의 해결을 방해하는 영상취재로 선정적인 보도영상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원칙 없는 화면가리기 편집을 통한 자기편의적인 정보통제와 과도한 가공으로 과도한 정보생산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는 객관적 영상취재, 사태해결에 중요성을 두는 영상취재,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회복시켜주는 치유적 영상편집, 팩트의 재가공을 최소화한 영상구성을 들었다.

임연희(2014)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행태」연구에서 기사의 중요도, 보도유형, 취재원(정보원), 핵심주제유형 등 4가지 분석유목을 설정하고, 재난보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재난방송 보도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많은 기자들이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속보경쟁만 벌였지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대안을 찾는 노력은 미흡했다. 둘째,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여주기보다 단편적 보도에 치중했다는 점이다. 셋째, 언론의 기본 역할과 저널리즘의 의무를 망각했다는 것이다. 즉, 진실을 추구해야 할 저널리즘의 첫째 의무를 버리고 흥미위주의 개인적 문제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과거 재난보도에서 나왔던, '재난보도 기본방향의 부재', '보도태도의 문제', '취재보도체계와 원칙의 부재' 등과 같은 문제점을 그대로 재연했음을 지적하였다.

황 근(2014)은 「'세월호 참사' 보도의 문제점과 보도방향」[7]에 대한 연구에서 방송사 모두 소나기 저널리즘 행태를 재연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인간적 흥미위주의 선정적 보도를 하고, 책임공방, 원인규명, 구조활동 등과 관련해서 갈등적 뉴스들이 많아,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적 통합기능을 저해한다고 하였다.

방문신(2014)은 '세월호 재난보도가 남긴 과제와 교훈'에서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논란이 됐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정보의 일방적 전달(정보 소스). 둘째,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 부족(취재 태도). 셋째, 미확인 선정성(과잉 경쟁)이다. 인터넷상에서 기레기('기자+쓰레기'의 합성어) 논란을 자초했던 부분[8]은 대부분

7) 방송사별 보도내용(재해정보, 피해상황, 재난피해자 보도, 구조활동 등), 취재정보원, 전달방식, 보도프레임(갈등 프레임, 책임귀인프레임, 인간적 흥미 프레임 등), 기사형식(이성적, 감성적)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8) 최대 피해자가 나온 단원고 3학년생들이 지난 4월 24일 휴업 8일 만에 등교, '편지 쓰는 수업'시간에 작성한 '대한민국의 직업병에 걸린 기자들께'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원래 제 장래희망은 여러분과 같은 기자였다"며 "그런데 제 꿈이 바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이런 유형이 많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자는 다음의 3가지 '① 알고 있는 사실만 말하라: 기자 본인이 말하고 있는 정보의 출처, 신뢰의 한계를 꼭 이야기하라.', '② 궁금증에 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시청자와 교감하라: 정보는 제한 돼 있더라도 시청자들의 궁금증은 지속적으로 언급해 줘야 한다.', '③ 상황에 대한 판단 근거와 의미를 설명하라: 화면이 갖는 상황적 의미를 적절한 전문가를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설명해줘야 한다.' 를 지켜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진로(2014)는 '언론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사고 직후 정확한 정보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속보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못한 오보, 사고 피해 관련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인터뷰, 취재보도과정에서 자극적 영상을 사용한 선정성,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양방향의 한 쪽 입장을 지향하고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정파적 보도라고 하였다.

홍은희(2014a)는 '한국 재난보도의 과제'에서 세월호 침몰사건 보도가 남긴 숙제를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한국 재난보도의 고질적 병폐인 선정성을 탈피하지 못했다. 재난보도의 선정성에 익숙해진 까닭으로 오열하는 실종자 가족에게 카메라를 들이댄 기자는 '선정성'이 아니라 '현장감'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둘째, 비정상적인 취재방법을 남용했다. 실종자 가족을 몰래 녹취하다가 발각된 기자나, 가족으로 위장해 바지선을 타려다 신분이 발간된 기자는 내심 '기자정신'을 발휘한 것으로 여길지 모른다. 셋째, 정보원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지 못했다. 민간잠수부라고 속인 20대 여성을 방송에 출연시킨 점은 정보원에 대한 검증이 얼마나 엉성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는 저널리스트의 올바른 직업윤리의식 함양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이상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사실 검증절차 없이 속보경쟁으로 인한 오보. 둘째, 재해보도 기능보다 시청자중심의 보도로 인한 흥미 중심과 선정성. 셋째,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비정상적인 취재 방법. 넷째, 재난보도 준칙을 숙지하지 못한 기자 자질의 부족, 마지막으로 언론사와 정치권력의 연계, 유착,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정파적 보도경향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지 않는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보도, 언론사의 재난보도 전문성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보성 보다는 정확성을 준수하고 선정적 보도 경쟁을 자제, 전문적인 정보원을 통한 원인분석, 대안보도를 해야 한다. 현장 모습을 시시각각으로 전달하는데 급급한 경마식 보도보다는 현장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양심과 신념을 뒤로 한 채 가만히 있어도 죽을 만큼 힘든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 분들, 애타게 기다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줬기 때문"이라며 장래 희망의 더 이상 기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김창남, 김아영, 2014.4.25).

조망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조를 최대화하는 보도방식이 필요하다.

재난보도의 경우 언론도 평시의 취재와 보도 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태에 접근해야 한다. 언론사들은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일원화된 취재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과열된 취재와 보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보와 혼란 등을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안정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오대영, 2014). 따라서 언론사, 언론계 내부의 자성이 필요하다. 재난 전문기자를 육성하고 재난보도를 전담하는 전문팀이 상설화 돼 있어야 하고, 재난보도 현장의 상황이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양질의 정보 제공을 위해 취재된 기사를 선별할 수 있는 현장 데스크를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홍은희, 2014b).

3.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의의

뉴스보도영상에 관한 연구와 재난보도영상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 등의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종수(1999)의 분석틀을 원용해 영상의 구성 방식과 영상기법을 분석하였고, 재난보도영상은 촬영의 각도와 사이즈, 영상의 반복 정도(부상자 구조/치료화면, 피해자 사체, 유품 등) 등을 통해서 보도영상의 선정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앞선 재난보도영상에 관한 연구에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대상의 분석기간, 분석유목, 분석방법에는 한계가 있어서 전반적인 재난보도영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기존 틀에 고착되어 연구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종수(1999)의 연구에서 나타난 화면구성방식, 뉴스내용과 뉴스영상의 일치도, 연관성의 분석유목을 참조하거나 이창훈(2008)과 박형철(2008)의 영상구성 특성인 영상기법<영상의 전개 속도, 카메라워킹, 디지털 영상효과, 영상 재생속도 조절, 커팅(Cutting), 디졸브(Dissolve)> 등을 이용하여 분류하는 등 기존 연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로 보도영상 분석 기간이 짧거나 빈도 측정으로 선정성을 분석하였다. 이성림(1996)은 삼풍백화점붕괴 참사 방송보도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인권보호라는 양립하는 두 가지의 가치가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조정되는지 살펴보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지만 연구자가 인정하듯이 선정한 자료가 이틀간의 자료였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이화섭(2001)은 미국 9.11 테러 참사보도를 중심으로 재난방송의 '폭력적 영상' 연구를 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보도영상의 선정성을 측정했으나 9.11 테러 참사 당시 선정적인 화면을 3종류 ①충돌 ②붕괴 ③CG 로 한정하고 출현빈도 수에 따라 영상의 선정성을 판단하였기에 전반적인 재난보도영상을 논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러한 선행연구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도영상을 중심으로 귀납적 방법을 통해 영상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리고 보도영상출처를 알아본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재난보도영상을 연구하고자 하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보도영상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영상에 대한 연구는 뉴스제작자와 시청자 모두에게 유용한 연구임은 자명하지만 영상의 측정방법이 어렵고 뉴스시청에 영향을 끼치는 수많은 변인들 때문에 명쾌한 답을 얻기 힘들어 오래전부터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이창훈, 2008).

둘째, 그동안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난보도영상의 선정성과 자극성이 지적되어 왔다. 더욱 큰 문제는 보도영상 관련 재난보도준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해나 재난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뉴얼이 중요하다. 이번 세월호 사고 현장에 있었던 몇몇 기자들은 재난보도준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던 만큼[9] 재난보도준칙은 유명무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재난보도준칙을 근거로 세월호 재난방송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보도영상을 컷 단위로 구분하여 보도영상 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영상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 방송의 속성상 신속성과 영상 확보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방송사에서 물리적,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방송사들은 자체적으로 촬영한 영상 외에 공식적 기관이나 개인들로부터 확보한 제보·제공영상을 많이 사용한다. 특히 재난상황에서의 제보·제공영상은 취재의 한계를 보완해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문제는 이러한 영상이 신뢰도를 담보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 검증절차 없이 보도할 경우 오보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시청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속보경쟁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들은 결과적으로 TV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데에 더욱 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재난방송 시 제보·제공영상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제보영상들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재난보도영상이 최종적으로 방송에 나가기 위해서는 촬영기자들의 편집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촬영과 편집을 통해 재난보도영상을 책임지는 촬영기자들의 재난보도 준칙이나 영상촬영·편집 매뉴얼의 숙지 및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10] 이번 세

9) 기자들은 “재난보도현장기자로서 재난보도의 준칙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이 준칙조차 제대로 한 번 읽어보지 못한 상태였다.”, “보도국의 방침 아래 움직이려 노력했지만 간혹 실종자 숫자나 수색 상황 등 정부 발표를 보완 취재 없이 보도하기에 바빴던 측면도 있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체계화되지 않았다.” 등의 고백을 한 바 있다(관훈저널, 2014).

10) 줄리안 H. 뉴튼(Julianne H. Newton, 2006)은 뉴스영상을 담당하는 관찰자는 뉴스 미디어 이미지

월호 사고에서 전반적인 보도영상의 분석을 통해서 촬영기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재난보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텍스트 또는 프레임 연구(강진숙, 1996; 진양혜, 2003; 이경미·최낙진, 2008; 김희철, 유승관·강경수, 이연, 2011; 양영신, 2012; 최현주, 2013; 임연희, 2014 등)에 치중되어 있고, 재난보도영상에 대한 연구(이성림, 1996; 이화섭, 2001; 송종길, 2003; 이승열, 2004; 백선기·이옥기, 2012; 등)는 TV뉴스에서 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뉴스 콘텐츠 연구에 비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보도영상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재난보도의 개념 정의 및 보도준칙

1. 재난보도의 개념 정의 및 기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은 제3조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재난의 유형을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고 있는데,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고,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사회적재난)를 말한다.

프리츠(Fritz, 1961)는 재난을 ‘특정 시점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여 그 지역사회 전체 혹은 일부분이 심각하게 인명 피해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어 그 사회의 정상적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사건’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박덕근(2008)은 재난을 단순재난과 복합재난의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단순재난은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통칭되는 자연적 현상에 의한 것이고 복합재난은 난민 이동이나 인종 학살, 내전과 같은 사회적 상황에 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세월호 참사는 특정한 시점에 발생되어 특정지역에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인재인 동시에 선박의 문제로 인해 침몰한 인위적 재난이자 사회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로부터 의식적으로 혹은 능동적으로 타당한 진실을 추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은 이들에게 지워지는 책임이다. 1)시각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추구한다. 2)이미지 속에 담긴 메시지와 개개인에게서 나타나는 의미를 판독한다. 3)시각적 메시지를 비평적으로 사고한다. 4)오보나 허위인 영상 르포르타주를 판별한다.

영향을 끼친 복합재난으로 볼 수 있다(임연희, 2014).

재난보도는 실제로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도하는 중계방송(Radio, TV, DMB) 등을 의미하며 즉, 광의의 의미로는 재난상황을 미리 사전에 전달하는 예보, 경보, 주의보, 특보뿐만 아니라, 사후 재난 상황인 복구·구조·부흥 등의 재난정보도 재난보도이다(이연, 2011b).

KBS에서는 재난방송을 방송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자연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해 방송 내용을 임시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 MBC에서는 재난방송을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이미 발생한 재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정상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규 방송, 스크롤 방송, 특집편성 방송 등을 포함한 일체의 방송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각국마다 재난방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재난보도 하도록 각국 법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송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재해 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방송실시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의 실시와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재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재난방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지역 등에 적합한 재난방송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재난의 유형, 예측가능성,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해 재난방송 대상사업자 중 일부를 선별하여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11]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TV뉴스는 영상과 음향을 동반하고 매스미디어 중에서 가장 속보성이 뛰어난 매체이기 때문에 재난발생 시에는 재난보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재난보도는 평상의 사건이나 사고보도 때와는 기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이유로는 첫 번째로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에게는 정보제공자이면서 동시에 재난에 처한 상황의 향방과 재난피해 대책과 복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정보소비자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피해의 범위나 규모가 상시체제의 해결능력을 넘어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 번째로 대형 재난보도의 경우에는 경보 및 예보체제로서의 언론의 기능이

11) 방송통신위원회, 효율적인 재난방송 실시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001&boardId=1113&boardSeq=40219

요구될 뿐 아니라 피해 규모의 최소화를 위한 역할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재난보도는 재난 초기에 국민들의 상황 파악을 돕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실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유승관·강경수, 2011). 사실(fact)와 의견(opinion)을 혼동하고 취재경쟁으로 인해 구조를 방해하거나 참혹한 현장의 모습으로 국민을 흥분시키기 보다는 보도의 객관성, 일관성,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냉정하게 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이성림, 1996). 즉 재난재해 보도가 재난재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고내용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정보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보도의 기능과 동시에 방재기능도 수행해야한다(유승관·강경수, 2011). 또한 재난이 어느 정도 수습되어 가는 시기에 이르면 재난의 원인과 정확한 피해규모, 상황에 대한 재정리가 요구되며, 재난에 대비한 사회 안전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임연희, 2014). 재난을 당한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재난을 조기에 복구하는 '재난 복구와 희망정보'를 제공하는 부흥의 기능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이민규, 2011). 이와 같이 재난방송의 기능은 보도, 방재, 복구 또는 부흥 이렇게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재난방송에서는 3가지의 기능을 균형 있게 방송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방송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방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송종길·이연·조원철, 2004)고 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재난보도 준칙의 제정 배경 및 의의

재난보도 준칙은 재해 발생에 따른 보도 계획을 규정하고 언론인들이 재난보도 시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995년 1월 17일에 고베에서 일어난 '한신대지진'이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등은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그때까지는 종래에 시행되던 가장 원조 격인 <풍수해대책법>이 있었는데, 이는 1967년에 제정된 재해대책법으로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법이었다. 그 후 1995년 12월6일에는 <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4993호)>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서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1995년 7월 18일에 법률 제4950호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어서 붕괴사고나 화재, 교통사고 등 인위재난에 대비하는 등 정부의 안전관리조직이 대폭 강화되게 되었다. 이 법의 시행령에서 재난방송국의 지정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긴 했지만, KBS를 방재관련 공공기관으로 상시 지정하여

언론 스스로 연구하고 계발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정연구, 1995).

이후 2000년 9월 25일 방송위에서 '재난방송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KBS가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었으며 <방송법> 제 75조 규정하는 재난방송 주관기관으로서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위적인 대형 사고나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특히 재난별 상황과 행동요령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고지해야 하며, 전 국민에게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재난방송의 단계도 피해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나눠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재난보도지침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언론연구원은 1996년 보고서를 통해 총 34개의 구체적 준칙들을 제안했다. 이 준칙 제안이 있기 전에는 우리나라 어느 방송사에도 재난보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그러나 KBS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은 한국언론연구원이 제안한 보도준칙을 충실히 반영한 '재난·재해보도의 지침'을 설정하고, 이 지침 아래 "1)취재는 인명을 최우선으로 구조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7)부정확한 보도로 판명될 경우 신속하게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 등 총 17개 준칙들을 마련해 놓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KBS는 국내 방송사 가운데 최초로 지난 2002년 'KBS 재난방송 매뉴얼'을 탄생시켰다. 이 매뉴얼은 태풍 '루사'[12], 중국민항기 추락사고[13] 등 대형재난이 연이어 터지면서 지난 2012년까지 3차례 수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원래의 틀과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실제 재난방송이나 취재에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매뉴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2013년 개정된 'KBS 재난방송 매뉴얼'은 100페이지 남짓한 소책자임에도 재난 방송의 정의와 보도준칙에서부터 재난 방송단 조직, 단계별 재난 방송, 지역 재난 방송, 재난 방송 큐시트, 관련 부처/전문가 연락처 등 재난방송과 관련된 폭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다. 종전 매뉴얼보다는 내용이 크게 풍성해지고 구체화된 것으로 국내 언론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 보도 매뉴얼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양희진, 2014).

---

12) 태풍 루사(태풍 번호 0215, JTWC 지정 번호 21W, 국제명 RUSA)는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15번째 태풍으로서, 2002년 8월 31일 한반도에 상륙하여 사망·실종 246명의 인명 피해와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다.

13)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사고(中國國際航空一二九編墜落事故)는 2002년 4월 15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김해시 지내동 동원아파트 뒷편에 있는 돗대산(해발 380m) 정상 인근에서 발생한 민항기 추락 사고이다. 승객 155명(중국 국적 18명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1명 포함), 승무원 12명 등 탑승객 167명 중 128명이 사망한 참사이다.

일본은 각 언론사마다 '재해보도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다. NHK의 경우는 지진발생 직후 바로 20초 이내에 종합TV 화면에 자막이 뜨면서 진도와 진원지를 즉시 보도하게 된다. 민방이나 신문사의 경우도 준 방재기관으로 때에 따라서는 광고도 중지하고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 'BBC가이드라인'을 보면, 재난이나 전쟁, 테러, 인질사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명확한 사실만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연, 2014).

우리나라는 방송법으로 KBS를 방재기관으로 지정하여 재난방송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일본은 재해대책 기본법에 NHK를 방재관련 지정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방송법에 의해 방송사업자는 방재관련 방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백선기·이옥기·이경락, 2012). 이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재난·재해방송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데 주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KBS 매뉴얼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이다. 보도내용은 일차적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내용이어야 하며, 피해자 유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재난방송은 단순한 현장상황을 전달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하는데 우선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한다.

다음은 KBS와 MBC가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보도준칙을 규정한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2-1> 보도준칙

KBS 보도준칙[14]
①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방송한다. ② 방재 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한 방재와 대응, 복구, 질서 회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을 한다. ③ 재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되 불필요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냉정하고 침착하게 보도 한다. ④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정보를 방송하는데 주력한다. 단순한 현장 상황전달 보다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우선 노력한다. ⑤ 사실과 관련 없는 주관적인 논평이나 감정 표현을 자제하며 본질을 호도할 수 있는 즉흥적이거나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지 않는다. ⑥ 재난보도는 신중하고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선정적인 보도나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취재·보도는 지양한다. ⑦ 재난으로 인한 패해 규모 등의 통계 발표는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보도 한다. 다만, 공식 발표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자체적인 취재 결과를 보도하되 정확성과 객관성을 최

대한 유지하고 방송 시에는 자체 집계 결과임을 밝힌다.
⑧ 재난방송에는 과거 자료화면 사용은 지양한다. 부득이 자료화면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화면 설명자막을 내보낸다.

MBC 보도준칙[15)]

① 재난방송의 목적은 재난 방지와 피해 최소화에 있는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보도를 전제로 한다.
② 재난보도는 단순한 상황전달보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
③ 재난피해 상황 등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도는 당국의 공식발표를 기준으로 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나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단정적인 표현은 피한다.
④ 정확하게 취재되지 않은 근거없는 소문은 보도하지 않으며, 사실과 관계없는 즉흥적인 논평 및 감정적·주관적 가치판단의 표현은 자제한다.
⑤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보도했을 경우, 신속하게 보도내용을 정정한다.
⑥ 시청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장면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방송하지 않는다.
⑦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세한 신상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⑧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⑨ 인명구조와 보호, 사후수습 등의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무리한 취재 및 방송은 지양한다.
⑩ 과거 자료의 사용은 해당 사고 관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용할 경우 과거자료라는 점을 밝힌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러한 지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각 언론사들은 왜곡된 속보경쟁,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내용전달, 예의를 벗어난 취재행태 등으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기자협회는 긴급히 보도가이드라인을 임시로 만들어 발표하였다.

<표 2-2> 세월호 참사보도 가이드라인 10개항

<세월호 참사보도 가이드라인 10개항>

14)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KBS는 대대적인 재난방송체계 정비에 나섰고 그 하나로 2013년 6월 개정판 재난방송 매뉴얼을 내놓았다. 이 매뉴얼에는 재난방송의 보도준칙에서부터 재난방송단 조직, 단계별 재난방송, 지역 재난 방송, 재난 방송 가상 큐시트 등 재난방송과 관련된 폭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다.
15) MBC 재난방송 매뉴얼은 천재지변이나 대형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을 실시함으로써 방송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 8일 제정되었다.

① 세월호 참사 보도는 신속함에 앞서 무엇보다 정확해야 한다.

② 피해 관련 통계나 명단 등은 반드시 재난구조기관의 공식 발표에 의거해 보도한다.

③ 진도실내체육관, 팽목항, 고려대 안산병원 등 주요 현장에서 취재와 인터뷰는 신중해야 하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 보도한다.

④ 생존 학생이나 아동에 대한 취재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⑤ 언론은 보도된 내용이 오보로 드러나면 신속히 정정 보도를 하고 사과해야 한다.

⑥ 언론은 자극적 영상이나 무분별한 사진, 선정적 어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⑦ 언론은 불확실한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보도를 통해 유언비어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한다.

⑧ 영상취재는 구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근접취재 장면의 보도는 가급적 삼간다.

⑨ 기자는 개인적 감정이 반영되어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을 자제해야 한다.

⑩ 언론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국민들에게 희망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2014년 4월 20일 한국기자협회

나아가 재난보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자성 끝에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5개월이 지난 9월 16일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5개 단체는 공동으로 재난보도준칙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새로운 보도지침은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한국기자협회에서 논의되었던[16] 것에 비해 피해자 인권보호와 취재진 안전 확보 등 구체적인 취재 보도의 원칙을 규정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는 현장 상황이 왜곡되지 않도록 현장에 데스크를 두고 속보경쟁에 치우쳐 정확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오열 등의 과도한 감정표현, 본질과 관련 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는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에게 인터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재난방송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효율적 재난방송 기반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재난방송 준칙' 및 방송협회 등 5개 언론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재난보도 준칙 중 핵심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방송사 자체 매뉴얼을 제작·비치토록 하고, 기자.아나운서.PD 등 재난담당 관계자들이 재난방송 준칙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의무를 부여하였다.

다음은 언론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제정한 재난보도준칙이다.

16)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재난보도준칙 제정을 추진하다 초안만 만들고 중단됐었다.

<표 2-3> 언론 5개 단체 공동 재난보도준칙

언론5개 단체 공동 재난보도준칙(2014)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① 제3조(정확한 보도) 언론은 재난 발생 사실과 피해 및 구조상황 등 재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해야 한다. ② 제4조(인명구조와 수습 우선) 재난현장 취재는 긴급한 인명구조와 보호, 사후수습 등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관리 당국이 설정한 폴리스라인, 포토라인 등 취재 제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한다. ③ 제5조(피해의 최소화) 언론의 역할 중에는 방재와 복구기능도 있음을 유념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④ 제6조(예방 정보 제공) 언론은 사실 전달뿐만 아니라 새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와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 및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나 행동요령 등을 전달하는데도 노력해야 한다. ⑤ 제7조(비윤리적 취재 금지) 취재를 할 때는 신분을 밝혀야 한다. 신분 사칭이나 비밀촬영 및 녹음 등 비윤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한 취재는 하지 않는다. ⑥ 제8조(통제지역 취재) 병원, 피난처, 수사기관 등 출입을 통제하는 곳에서의 취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제10조(무리한 보도 경쟁 자제) 언론사와 제작책임자는 속보 경쟁에 치우쳐 현장기자에게 무리한 취재나 제작을 요구함으로써 정확성을 소홀히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⑧ 제11조(공적 정보의 취급) 피해 규모나 피해자 명단, 사고 원인과 수사 상황 등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도는 책임 있는 재난관리당국이나 관련기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되 공식발표의 진위와 정확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 공식 발표가 늦어지거나 발표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되 정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자체 취재임을 밝혀야 한다. ⑨ 제15조(선정적 보도 지양)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위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는다.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 보도는 지양한다. 불필요한 반발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근접 취재도 자제한다. ⑩ 제16조(감정적 표현 자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냉정하고 침착한 보도 태도를 유지한다.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⑪ 제17조(정정과 반론 보도)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독자나 시청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고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반론 보도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하다. ⑫ 제18조(피해자 보호)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⑬ 제19조(신상공개 주의)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⑭ 제20조(피해자 인터뷰)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에게 인터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인터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비밀 촬영이나 녹음 등은 하지 않는다. 인터뷰에 응한다 할지라도 질문 내용과 질문 방법, 인터뷰 시간 등을 세심하게 배려해 피해자의 심리적 육체적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⑮ 제23조(과거 자료 사용 자제)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 사고의 기사, 사진, 영상, 음성 등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사건 사고와 관련된 사람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한다.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과거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상과 같이 재난보도 시 여러 가지 문제 등의 발생함에 따라 앞선 여러 연구자들은 보도준칙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백선기(2012)는 재난보도 준칙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재난방송이 취재와 보도에 신중을 기해 새로운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방송사의 보도인력의 전문화가 뒷받침되고 재난·재해 시에 보도 장비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필요하다. 셋째, 전반적인 지상파 TV 시청률의 하락과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재난에 관련된 시청자들의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미디어 변화에 맞춘 방송사 재난방송의 업그레이드와 다변화를 위해서 재난보도 준칙이 필요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지성우(2011)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입고 각종 오보로 인해 재난상황 시에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시를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재난을 당한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내용이 방영되도록 사회적 통합의 가능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하게 위기 상황을 보도하기 위해 객관성과 정확성이 준수되어야 한다. 셋째,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취재해야 한다. 넷째, 피해자 및 사상자의 자세한 신상공개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사생활이 존중되어야 한다.

김여라(2011)는 재난 발생 시 각 방송사들은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이나 단어, 그리고 오디오의 사용으로 재해 및 재난 상황을 확대하여 보도함으로써 시청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각 방송사는 재난·재해 보도 치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구조기관의 공식 발표에 따른 통계를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녀는 방송사들도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게 아니라, 선진화·전문화된 재난보도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자들의 보도준칙의 필요성과 각 언론사와 언론 5개 단체 공동 보도준칙을 요약해 보면, 첫째, 재난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보도해야 한다. 둘째,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보도해야 한다. 셋째,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로 인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지양한다. 넷째, 주관적 논평이나 감정 표현을 자제하며 즉흥적이고 흥미위주의 보도를 자제한다. 다섯째, 재난 피해 명단이나 피해 규모 등의 통계발표는 관련기관의 공식 발표 기준을 따르며, 자체적인 취재 시에는 보도내용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최대한 유지 한다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위기와 재난 시 재난방송의 중요성에 비추어 실제 국내 방송사들이 공익성·공공성을 달성하고 국가 위기 극복 및 국민 통합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기존의 보도형태를 점검해보고 재난보도 문제점 및 기준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 2절 보도의 영상기능 및 역할에 관한 논의

1. 보도영상의 기능 및 역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영상이란 화면과 소리 즉, 시청각적인 요소를 통해 기존 언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새로운 언어이며, 영상은 직접 체험을 통한 감각적인 전달이기 때문에 기존의 언어로는 전할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현실의 다른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최이정, 2004).

양용철(2009)은 TV영상을 사회적 기능에 따라 크게 2가지로, 사실적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보도·교양 영상과 오락적 영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오락적 영상이란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담고 있는 메시지의 비현실성이나 내용의 허구성 등의 크게 문제되지 않는 창작적 영상을 말하며, 보도영상은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사실에 기반을 둔 영상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보도영상은 영상 저널리즘을 완성하기 위해 신속성, 현장성, 사실성, 그리고 보도의 기본 원칙에 합당한 목적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신속성이 없는 뉴스는 이미 뉴스가 아니며, 현장에서 추출된 리얼리티를 담지 않으면 보도영상은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이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해도 뉴스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못하고 수용자의 필요와 맞물리지 못하면 보도영상은 사회적 역할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최중억(2013)은 보도영상은 언어적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무질서하고 유동적인 현실세계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하는 틀을 가진다고 정의한다. 그리고 언어적 텍스트와 느슨한 연관만을 갖는 정형화된 친숙한 이미지들은 독자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대

부분 뉴스기관의 상징적 권력을 프로모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유동적이고 다원화된 이미지의 소통영역을 복원시키고, 이미지가 문자논리(word-logic)가 아닌 그림논리(picture-logic)에 의해 현실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뉴스 영상보도의 가능성이라고 말한다.

정민환(2012)은 보도영상은 그 어떤 언어나 어휘보다 많은 정보량을 제공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가능한 도구이며 시청각 이미지를 통해 현실의 재현과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저널리즘의 핵심요소라고 말한다.

오명환(2009)은 영상뉴스의 여러 보도 방식 중 생중계 방식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는 카메라 메시지를 시청자가 접하는 시간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에 주목하여 이는 영상과 음성을 바탕으로 사실을 구현하는 생(生) 영상구현으로 다른 매체가 따라올 수 없는 분야임에 주목했다. 이러한 능력은 정보의 사실성을 중시하는 TV뉴스에서 큰 장점으로 평가되며, TV뉴스가 시청각 언어체로서 영향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낸다는 점에서 TV뉴스의 리얼리티 확보와 함께 메시지 강화, 영상을 통한 검증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이와 같이 보도영상은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의미를 시각적으로 부각시키는 영상의 언어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뉴스 프로그램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짜임새 있는 기사와 함께 뉴스의 전달력을 크게 높여 주고 있다. 보도영상은 '보는 것을 믿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심리적 사실성'에 의해 수용자들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또한, 수용자에게 현실세계와 연계되는 현실기반영상을 제공함으로써 뉴스의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 뉴스제작자는 보도영상을 정보전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수용자의 기억과 이해에 영향을 미치며, 뉴스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정민환, 2012).

반면에 보도영상은 제한적이고 선정적이다. 보도영상이 대상을 포괄적으로 묘사하고 현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지만 대상의 의미와 본질을 명확하게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영상은 감성에 소구하는 특성이 있어 아름다운 것, 자극적인 것, 움직임이 많은 것들을 담아내려는 속성이 있다. 수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제작자는 다양한 시각적 선택과 광학적 변화를 통해 대상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이윤성, 2013).

터크만(Tuchman, 1978)은 '뉴스는 세계를 향해 나 있는 창이다.' 라고 정의한다. 창틀을 통해 우리가 보는 바깥 풍경은 창의 크기나 창틀의 수, 유리의 맑고 흐린 정도, 창이 나 있는 방향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다. 그리고 같은 창이라도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도 눈앞에 펼쳐지는 바깥 풍경은 달라지게 된다. 터크만이 창이라는 비유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뉴스에 대해 갖기 쉬운 환상을 깨트리려는 것이다. 뉴스란 현실을 거울처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비춰 주지 않고 일정한 틀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통해 걸러내고 재구성된 모습을 보여 준다는 뜻이다.

마틴 레스터(Paul Martin Lester, 2003)는 영상 메시지는 지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함께 자극하기 때문에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가 될 수 있고 우리를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생각하게도 만들며 결과적으로 이미지들은 문장만으로는 설득하거나 영속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9.11참사에서 시청자들이 그 사건을 결코 잊혀 지지 않게 만드는 것도 바로 그 충격적인 영상메시지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충격적인 영상으로 인한 공포감은 사람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텔레비전 뉴스를 통한 위험 상황의 전달은 시청자의 심리적 불안, 걱정, 공포, 초조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정은하, 2008).

허버트 제트(Herbert Zettl, 2001)는 사람마다 영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영상을 강조, 명료화 그리고 해석의 과정을 통해 시청자들의 지각작용을 직간접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우리가 쓰는 일상의 언어는 전달의 실물감이나 현장감이 없이 개념적이고 간접적인데 비해, 영상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때로는 충격적인 인상을 남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각한 사건이나 사고를 영상 매체를 통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그 충격의 파급이나 직접성이 대단히 크고, 어떤 연구자들은 폭력적인 내용을 접하는 어린이들은 더욱 폭력적이 되고(공격자 효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생기며(피해자 효과)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아도 냉담해지는(무관심 효과)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텔레비전이라는 매체 자체가 기술여건상 증오나 질투, 경쟁, 빈곤, 폭력 등에 알맞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스포츠와 폭력물에 치중하게 되고 시청자들도 그런 프로에 흥미를 느낀다(최창섭, 1983). 따라서 방송사들은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화면을 통해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폭력성을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다(박치형, 2001).

이와 같이 TV매체의 폭력성과 충격적인 영상은 시청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지하철사고, 천안함 침몰, 세월호사고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의 경우 TV 이용도는 더욱 높다(박경숙·이관열, 2013). 타 매체보다 시각적인 집중도로 인해 수용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받는 만큼 보도영상이 볼거리만을 제공하고 가장 중요한 사실성과 객관적인 면에서 수용자들에게 신뢰성을 잃어버린다면 보도영상은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도영상은 수용자들의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전달을 해야 할 것이다.

2. 보도영상과 내용의 연관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방송의 보도영상과 내용의 연관성 여부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연구주제 가운데 하나다.

이종수(1999)는 「텔레비전 뉴스영상 구성」에서 한국텔레비전 뉴스영상이 언어적(청각적) 텍스트와의 상호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뉴스영상과 내용의 연관성을 연구하기 위해 4가지의 유목을 정리하였다. 첫째, 직접적 연관(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가 개념적,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청각적 메시지의 내용을 구체적, 서술적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해당). 둘째, 축어적 연관(시각과 청각이 개념상 연관되기보다는 청각적 채널의 메시지와 액면 그대로 연결됨). 셋째, 간접적 연관(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건과 행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나, 간접적으로 혹은 느슨하게 연관된 행위자, 장소, 물체 등을 보여주는 경우). 넷째, 무관(청각적 내용과 시각적 내용이 전혀 연관성이 없음). 분석결과 총 4675의 샷 중에서 간접적 연관을 갖는 경우(49.1%)가 직접적 연관을 갖는 경우(44.7%)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TV 뉴스가 뉴스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영상보다는 그렇지 않은 영상을 더 많이 구성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연구자는 언어적으로 전달되는 뉴스내용과 일치하는 영상이 제공될수록 정보전달 효율성이 증대되지만 무관한 영상일 경우 시청자들의 관심을 분산시켜 정보획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이지현·고영철(2010)은 제주지역 3개 지상파 TV뉴스를 바탕으로 보도영상과 내용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보도영상과 내용에 대한 일치도를 분석하는 유목은 이종수(1999)의 분석유목을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직접적 연관이 전체 뉴스의 51.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간접적 연관은 28.3%, 뉴스내용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영상 또한 20.1%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스 스토리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사안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영상은 그 사건이나 사안들은 직접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즉, 뉴스내용과 화면이 일치하거나 뉴스내용 외에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이 보도영상에서 약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보도영상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영상이 해당 사건이나 사안들을 직접 보여주지 못할 경우 시청자의 관심을 분산시켜며 때로는 왜곡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박형철(2008)은 「지역TV방송 뉴스의 내용과 영상의 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기사내용과 화면의 일치도를 연구하였다. 화면 내용은 보도내용과의 중복정도, 사건발생 장소와의 관계, 주제와 관련된 배경, 보도 주체의 신상, 주체의 활동 등으로 나누어 각각 20%를 적용해서 ①매우일치 80%이상 ②조금일치 60%이상-80%미만 ③보통 40%이상-60%미만 ④조금불일치 20%이상-40%미만 ⑤매우불일치 20%미만의 경우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기사의 내용과 화면의 일치도로 분석하였다. 일치도에서는 전반적으로 방송 3사가 90%이상의 일치도를 보였지만 자료화면의 의존도[17]가 높고 기사와 일치하지 않는 자료화면의 사용도 많았다. TV화면의 특성에 부합하는 접근방식이 부족하고 기사의 전체적 내용에 대한 일치보다 단편적인 하나의 문장이나 단어에 비중을 두고 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많았다. 따라서 영상미학에 기초한 심리적 영상표현 능력과 영상편집문법을 지키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재승(2011)은 아리랑국제방송 뉴스에 나타난 제주지역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뉴스내용과 영상이미지의 일치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뉴스내용과 영상에 대한 일치도를 분석하는 유목은 박형철(2008)의 분석유목을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보도영상에 나타난 제주지역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 뉴스가 전하고자 하는 주된 영상이 어디에 속하는가를 기준으로 분석유목을 자연, 동식물, 전통문화/예술, 국내외 행사, 도시경관, 행정/정치, 사건사고 현장, 인물, 지역생산품, 기타 등으로 분류했다. 분석결과, 보도영상 이미지와 내용의 일치도가 매우 높게(85.2%)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조금 일치(13.1%)로 나타났다. 이러한 뉴스내용과 영상이미지의 높은 일치도는 아리랑국제방송을 시청하는 수용자들에게 뉴스내용과 제주지역 이미지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의 객관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보도영상과 내용의 밀접한 연관성은 텔레비전 뉴스의 정보 전달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변수이며 뉴스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변수 중의 하나이다(이지현·고영철, 2010).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보도영상과 내용은 뉴스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신뢰감을 형성하고, 반대로 간접적이거나 무관한 경우에는 뉴스정보의 이해를 방해하게 되어 신뢰감을 상실하게 한다(강명구, 1990; Kats, 1997; 정민환, 2012, 재인용). 따라서 방송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보도영상과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우선순위로 꼽을 수는 없다. 만약, 뉴스내용에 너무 치우쳐 유사한 화면, 심지어 재연 화면을 구성하다든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영상을 사용한다면 뉴스가 보도하려는 방향과 정반대의 결과를 돌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될 때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뉴스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절 보도영상의 출처에 관한 논의

뉴스는 취재원으로부터 취재된 정보를 뉴스 수용자에게 전달하는데, 이때 취재원이란 신문이나 방송에 등장한 사람, 기사에서 인용된 사람, 배경정보나 기사를 제보한 사람 등 언론인이 목격했거나 인터뷰 한 인물이라고 정의한다(Gans, 1979 ; 진양혜,

17) 자료화면 하루 평균사용횟수 KBS 45.8회, MBC 12.5회, TJB 22.7회

2003, 재인용). 취재원은 보도내용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되며, 보도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객관성을 지탱해 주는 핵심적인 요소이다(Schudson, 1995). 방송뉴스 시청자들은 정보제공자의 이해와 관점에 따라 해당 이슈를 이해, 해석, 설명하게 되는 것이다. 동일한 뉴스의 의제나 주제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어떤 취재원의 관점, 입장, 이야기를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뉴스의 내용은 서로 달라진다(이재승, 2010).

취재원 출처와 마찬가지로 뉴스영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영상의 출처이다. 일반적으로 보도화면은 다음의 6가지 구조적 요소 ①사건화면 ②사운드바이트 ③자료화면 ④구성된 화면 ⑤로케이션 샷 ⑥기자 스탠드 업 로 분류할 수 있다(이종수, 1999). 위 6가지의 구조적 요소는 크게 3가지, 뉴스영상(①,③,④,⑤)과 취재원(②) 그리고 기자(⑥)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방송사 소속 기자를 제외한 출처를 확인해야 할 대상은 영상과 취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보도영상의 출처는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카메라기자가 촬영한 언론사 자체 영상, 시청자가 제보한 영상 그리고 공식적 정보원이 제공한 영상이다. 보통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영상을 제보영상이라 하고 경찰서나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서 웹 하드나 이메일의 형태로 제공하는 영상을 제공영상이라 한다(조성용, 2011). 제보·제공영상은 최근에야 방송사에서 사용을 늘리는 추세여서 관련 연구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방송뉴스의 경우 하나의 사건은 취재기자에 의해 취재되고, 카메라기자의 시각에 의해 혹은 현실적 조건에 의해 촬영된 영상이미지로 포착된다. 이때 포착된 영상이미지는 카메라기자 혹은 편집기자에 의해 편집되고, 데스크에 의해 뉴스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질서에 의해 유형화가 이루어진다(최민재. 2005).

방송사에 소속되어 있는 카메라기자는 방송 내·외부적으로 보도영상에 대한 뉴스의 진실성, 분위기의 고저, 사실의 중요성 등을 교육 받는다. 따라서 앵글의 선택, 출연자의 선정 등 보다 절제된 보도영상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한다. 반면에 제보영상은 기자가 미처 도달하지 못한 현장 상황을 포착,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할 수 있는 '현장성'과 속보성'이라는 강점이 있지만 조작 가능성, 출처의 문제, 충격적인 화면 위주 등 부정적인 시각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또한 취재원을 전적으로 믿고 사실여부를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이종수, 2008).

박관우(2009)의 「시청자 동영상제보의 활용에 따른 텔레비전 뉴스생산 변화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제보영상은 신속하고 다양한 화면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점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함께 제보영상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시각도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점으로는, 취재원 확인과 사실성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고, 제보 영상의 사건 재해 보도 등의 충격적인 화면 위주의 영상들만이 주로 실

제 뉴스에 활용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조성용(2011)은 「제보영상이 영상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건사고를 다루는 경성 뉴스의 경우에는 주로 사고 순간의 현장감과 즉각성을 강조한 목격 양식과 증거 양식이, 사적 영역인 인간적 흥미를 다룬 뉴스에서는 주로 일반인들의 개인적 영상 기록에 사용되는 일상적 양식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순한 의미의 일상적 양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시청자 제보영상이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공식적 정보원의 제공영상은 일반인의 제보영상에 비해 화질이 뛰어나고 영상의 전체적인 구도나 안정감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영상에서 사건사고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방서의 화재나 경찰서의 교통사고 등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김찬중(2007)은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외부제공 영상'의 뉴스가치에 관한 연구」에서 외부제공 영상은 출입처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사건/사고 혹은 범죄와 관련된 영상 비중이 많기 때문에 외부제공영상은 선정성, 인간적 흥미성 뉴스가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부제공 영상은 선정적 보도행태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타사와의 경쟁이라는 환경 속에서 가장 빠른 영상제보는 곧 특종이라는 인식이 작용하면서 제보·제공영상의 조작 가능성, 출처의 문제, 충격적인 화면 등의 부정적인 면을 뒤로하고 뉴스생산자들은 제보·제공영상의 뉴스사용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각 방송사들은 해경측이 제공한 영상을 반복 재생하면서 보도하였다. 구조작업을 하고 있는 해경대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방송사마다 활용하고 기사화했다. 하지만 뒤늦게 해경측은 또 다른 영상을 제공하면서 희생자 가족들은 물론 온 국민에게 강한 비판을 받아야 했다. 뒤늦게 제공한 영상에는 해경 대원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구조하는 모습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해경측은 본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영상들만 방송사에 제공했으며 방송사들도 또한 사전 검증작업 없이 무분별하게 방송에 내보낸 것이다.

방송사들은 제보영상을 뉴스가치로서 검증하기 위해 사실 확인은 물론 영상의 선정성, 자극성, 초상권 등 문제가 될 만 한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난이나 사건사고 현장에서 상황을 특보 체제로 전달할 때 영상기자가 촬영한 영상이 확보되기 전에 시민의 제보영상과 소방서나 경찰서의 제공영상, 현장의 CCTV가 없었다면 텔레비전 방송이 아닌 라디오 방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제보·제공영상은 뉴스 보도에서 1보(속보) 방송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 제보·제공 영상의 확보는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제보영상이 방송사 내·외부적으로 뉴스가치로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가 마련된다면 앞으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활용 범위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제 1절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번 세월호 사고 당시 각 방송사마다 재난보도영상을 어떻게 방송했고 그로인한 문제점과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재난보도영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뉴스제작 현업 종사자로서 영상을 가공할 수 있는 편집기 등의 장비사용과 영상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용이하다고 판단 재난보도영상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세월호 침몰사고에 나타난 재난보도영상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세월호 사고와 관련 KBS, MBC, JTBC의 보도영상 주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1. 방송사별 보도영상 주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2. 방송시기별 보도영상 주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세월호 사고와 관련 KBS, MBC, JTBC의 보도영상출처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1. 방송사별 보도영상출처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2. 방송시기별 보도영상출처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세월호 사고와 관련 KBS, MBC, JTBC의 인터뷰 유형 및 취재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1. 방송사별 인터뷰 유형 및 취재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2. 방송시기별 인터뷰 유형 및 취재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세월호 사고와 관련 KBS, MBC, JTBC의 보도주제 및 보도방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1. 방송사별 보도주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2. 방송시기별 보도방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연구문제 5. 세월호 사고와 관련 KBS, MBC, JTBC의 보도영상과 뉴스내용의 일치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5-1. 방송사별 보도영상과 뉴스내용의 일치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5-2. 방송시기별 보도영상과 뉴스내용의 일치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6. 세월호 사고와 관련 KBS, MBC, JTBC의 초상권 침해 비율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제 2절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표집방법

본 연구 대상은 재난주관방송사인 KBS 뉴스 9, 공영방송 MBC 뉴스데스크 그리고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 9> 저녁 메인뉴스이다.

종합편성채널(TV조선, JTBC, 채널A) 가운데 유독 JTBC를 2개 공영방송사와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은 JTBC <뉴스9>가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를 통해 평소 평균 1%대의 시청률을 기록하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4%대의 시청률을 기록했고 또한 JTBC가 지상파 방송사들을 제치고 가장 신뢰받는 방송사 1위를 기록하기도 했기 때문이다.[18)]

조사기간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부터 4월 25일까지 10일 동안이다. 이 기간 동안 3개 방송사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뉴스를 특보체제로 방송편성을 한 5-6일과 정상적인 뉴스 편성을 한 4-5일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각 방송사는 평소 메인뉴스는 60분(날씨, 스포츠 뉴스 등 포함) 이내로 시간분배를 하고 있지만,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당일부터는 방송 시간을 최소 20분에서 최대 60분 까지 연장하면서 긴급 특보체제 방송을 하였다.

전체 분석기간인 10일 동안 방송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각 방송사 메인뉴스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한 아이템에 20-30컷의 사용되는 영상을 각 방송사 홈페이지 VOD 자료를 보고 분석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각 방송사 메인뉴스를 방송사에 협조를 얻어 영상을 확보하거나 유튜브(youtube)[19)]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여 뉴스를 다운받았다.

본 연구는 뉴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뉴스 아이템을 분석단위(Unit of

18)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실시한 방송사 신뢰도 조사
http://mediatoday.co.kr/news/articlView.html?idxno=116829

19) http://www.youtube.com

analysis)로 설정했다. 저녁종합뉴스는 다양한 포맷의 뉴스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는 보도영상을 분석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종합뉴스 속에서도 그날의 간추린 내용을 설명하는 '주요뉴스', '간추린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 '스포츠 뉴스', '영상스케치', '단신뉴스', '날씨' 등은 본 연구와 별개로 간주하여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 관련 내용이지만(일반 영상뉴스 보도가 아닌) 기자 토론 및 대담 형식, 기자 스튜디오 참여 형식의 뉴스 아이템도 본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보도영상 주제와 출처에 초점을 맞춰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보도영상을 분석하고자 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앵커-현장기자 참여(중계차)화면과 PIP(Picture in picture)화면은 보도영상 분석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확보된 자료는 각 분석 유목에 따라 코딩을 실시하였고 코딩한 내용은 사회통계프로그램(SPSS)을 통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1) 분석대상

① 앵커-현장기자 참여(중계차)화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1> 앵커-현장기자

앵커-현장기자 참여는 대화형식이지만 보통 현장기자는 기사를 1문장에서 2문장을 읽고 영상 화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KBS 뉴스9과 MBC 뉴스데스크는 현장기자가 클로징 멘트를 하여 뉴스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템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JTBC <뉴스9>은 현장기자 화면이 차지하는 시간이 타 방송보다 길뿐 아니라 앵커와 현장기자가 2-3회 반복해서 질문을 주고받고 그에 따라 질문에 주제가 바뀔 수도 있어서 한 주제에 7컷 이상 나온 영상은 하나의 아이템으로 간주하고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② 분할 컷

<그림 2> 2분할 컷

하나의 화면에 2개의 화면 즉, 2분할 또는 3분할, 4분할 화면은 어느 주제유형에 포함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앞과 뒤의 영상의 흐름에 맞춰서 화면을 분류하였다. 예로, 앞의 영상이 세월호 침몰 영상이었고 바로 다음 영상의 <그림 2>와 같이 2분할 컷인데 세월호 침몰 영상이 포함될 경우에는 <그림 2>는 세월호 침몰 영상으로 분류하였다.

③ PIP(picture in picture)화면[20]

<그림 3> PIP 화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인터뷰가 PIP 화면으로 전환하여 사용될 경우, 인터뷰 배경화면에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영상이 바뀔 때마다 하나하나의 컷으로 분류하였다.

(2) 분석 제외 대상

한 아이템에 분류된 컷이 하나 또는 두 개의 컷이 나온 주제유형은 본 아이템에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영상순위에 분류하지 않았다. 그리고 앵커-기자 스튜디오/전문가 참여화면, 유가족/전문가 현장 인터뷰도 분석대상에서 제외 시켰다.

① 앵커-기자 스튜디오/전문가 참여 화면

20) 최근의 방송뉴스 경향은 그림이 되는 보여줄 것이 많은 기사에서는 영상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는 인터뷰이의 등장으로 인해 영상의 흐름을 끊어지지 않도록 피인터뷰인을 배경화면의 한편에 PIP(Picture in picture)방식으로 합성해 보여주는 등 영상을 이용한 시각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이창훈, 2008).

<그림 4> 앵커-기자 스튜디오

앵커-기자 스튜디오 화면은 앵커-현장 기자 화면과 마찬가지로 대화 형식이지만 하나의 주제를 이끌어가면서 스튜디오 화면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스튜디오 화면과 현장 화면을 교차하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관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특정 영상과 기사의 주제를 어느 시점에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②유가족/전문가 현장 인터뷰

<그림 5> 유가족 현장 인터뷰

기자 스튜디오 참여 화면과 마찬가지로 대화를 중심으로 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특정 영상과 기사의 주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 분석유목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신문들은 각 부서에서 취재해 온 기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1면에 배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면 테스크나 각 부서 팀장들은 1면에 자신들의 기사를 실리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송의 경우도 그날의 가장 중요한 뉴스는 대부분 앞에 배치한다. 따라서 각 방송사가 어떤 주제와 영상을 중요하게 다루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룬 영상과 그 영상의 컷 수를 측정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유목과 조작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영상 주제

보도영상 주제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결정했다. 우선 3개 방송사에서 어떤 영상들을 가장 많이 보도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방송사 뉴스 가운데 가장 긴 뉴스와 가장 짧은 뉴스를 각 1개씩 총 6개 뉴스를 임의적으로 추출한 후 그 속에 나오는 영상을 전부 분류한 결과 약 112개의 영상이 추출되었다[21]. 이 예비조사를 통해 추출된 112개 영상을 유사한 컷끼리 재분류한 결과 30개 유목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이 30개의 영상을 다시 9개 대주제로 재분류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영상분석 유목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각 방송사가 어떤 주제와 영상을 중요하게 다루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다룬 영상과 그 영상의 컷 수를 함께 측정했다. 여기에 대한 분석결과는 어떤 영상이 기자의 말에 비롯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1) 사고현장 : ① 세월호 선내[22] ② 세월호침몰/선외[23](세월호포함- 헬기샷, 바다샷) ③ 민/관/군 수색(세월호 미포함)[24] ④ 선수(뱃머리) 화면 ⑤ 리프트백(풍선)화면

(2) 피해자 구조/구출/이송/치료 (인물식별 유무 ⓐ가능 ⓑ불가능) ⑥ 탑승객 구조/구출(침몰현장 구조/구출) ⑦ 구조자 이송(진료/치료) ⑧ 희생자 이송

(3) 재난사고수습 및 대책: ⑨ 정부 측 (회의/기자회견/브리핑) ⑩ 청해진 해운 측 (회의/기자회견/브리핑) ⑪ 유족 측 (가족대책본부, 항의 방문)

(4) 재난사고 원인조사 및 책임규명: ⑫ 정부 및 관련기업 관리소홀(과적/안전점검) ⑬ 세월호 관계 회사 압수수색/직원조사 ⑭ 유병언 초점 관련조사/가족포함(생가, 갤러리, 국내외 부동산, 소유회사, 구원파) ⑮ 기타( )

(5) 세월호 사고 여파/영향: ⑯ 단원고(등교, 교실, 탁구선수, 교감자살 등) ⑰ 경제적 여파(동네 울상, 여행취소, 스미싱 피해)

---

21) 부록 참조

22) 세월호 선내 화면은 세월호가 침몰되기 전 세월호 안에서 핸드폰 등으로 촬영된 영상을 말한다.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선반 밑에 웅크리는 모습,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 등.

23) 세월호가 침몰 중인 화면으로 바다 위 배와 헬기에서 촬영된 영상.

24) 민/관/군이 세월호 주변을 수색하는 영상. 단, 세월호 침몰영상과 구분하기 위해 세월호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6) 분향소/오열/애도의 물결: ⑱ 국내 분위기(분향, 영결식, 추모) ⑲ 국외 분위기(분향, 영결식, 추모) ⑳ 피해자, 유족 오열/항의(인물식별유무 ⓐ 가능 ⓑ불가능) ㉑ 피해자, 유족의 유품, 핸드폰화면, SNS.

(7) 구호 및 지원 활동 : ㉒ 각종 물자 지원/기부금 모금운동 ㉓ 현장 자원봉사활동

(8) 자료화면: ㉔ 세월호 침몰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화면(천안함사고, 씨랜드화재, 성수대교붕괴, 미국9.11테러, 세월호 유사 선박 등) ㉕ 컴퓨터 그래픽 CG, 글자, 문서, 미니어처 등.

(9) 기타: ㉖ 팽목항 방문(대통령, 총리, 정치인 등) ㉗ 유가족(먼 산 바라보는/체념) ㉘ 일반적인 팽목항/진도 체육관 ㉙ 일반적인 항구(유람선/선박 입출항. 사람들 탑승) ㉚ 기타 (타 유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2) 보도영상 출처

보도영상 출처는 보도영상 주제 분류와 비슷하게 3개 방송사에서 추출한 영상을 가지고 누가 촬영한 영상들이 방송에서 가장 많이 보도 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5개의 유목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하나의 아이템에 서로 다른 영상이 2-3개 연달아 나올 때 어떤 곳에서 나온 영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상출처의 중요도를 분석했다.

보도영상의 출처 순위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순서대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체크했다.

① 카메라 기자 ② 공식적 정보원 제공 ③ 시청자 제보/선원 제보
④ CG ⑤ 기타영상

3) 취재원 출처

각 방송사가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와 관련 누구의 입장을 가장 많이 전달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 유형 인물을 ①공식적 취재원 ②비공식적 취재원 ③기타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공식적 취재원은 중앙정부, 국회/정당, 각종 행정부처 및 기관, 전문가 등을 말한다. 나머지는 비공식적 취재원과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각 방송사가 정부 측의 입장과 주장을 많이 중계했는지 아니면 피해자와 유족들의 입장을 많이 대변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방송뉴스의 경우 인터뷰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뉴스를 계속 주목하게도 하고 외면하게 만들기도 한다.

4) 취재원의 유형

취재원은 보도한 내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직간접으로 인용된 사람이나 기관/단체 혹은 자료나 기록을 모두 포함한다(한국언론재단, 2007).

이 정의에 입각해, 취재원의 분석유목은 3개 방송사 뉴스 아이템 가운데 각 방송사에서 2개씩 무작위로 뽑아 예비조사 한 뒤, 선행연구(이경미·최낙진, 2008; 최현주, 2012)에서 사용했던 유목과 비교 검토하여 13가지로 만들었다.

취재원에 대한 분석은 뉴스내용 가운데 취재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거나, 취재원이 직접적으로 인용되는 경우, 취재원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코딩을 실시해, 막연한 추측만으로 취재원을 분류하는 오류를 최대한 방지했다(심훈, 2005). 취재원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취재원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지 알아보기 위해 취재원의 유형은 각 기사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코딩을 했다.

① 중앙정부 ② 국회/정당 ③ 각계 전문가 및 선박 안전점검 관계자 ④ 전/현 청해진해운 측 및 해운조합관계자 ⑤ 민간구조대/군인 ⑥ 구조자/유가족 ⑦ 선박직 직원 ⑧ 사회단체, 자원봉사 및 학교 관계자 ⑨ 일반시민/학생/종교인 등 ⑩ 외국인 ⑪ 기자 취재 ⑫ 유병언 관계(장남, 차남, 측근) 및 영농조합 관련 등 ⑬ 기타

5) 보도주제 유형

일반적으로 재난보도에 있어서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주제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관련 보도를 분석한 송종길(2003)의 주제 분류 방식을 원용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유목은 사고종합, 사고수습/대책, 사고관련 조사, 안전대책 점검, 사건묘사, 휴먼 에피소드, 기타 등이다.

보도주제는 각 아이템에 제시된 표제 혹은 자막을 중심으로 분류했다. 한 뉴스 기사가 두 가지 이상 항목에 속할 경우에는 기사 내용과 화면을 동시에 비교하면서 보도내용이 가장 가깝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보도주제를 선택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사고종합(사고개요/피해)

사고종합 유목에는 “제주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세월호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사고 발생 두 시간 만에 바닷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와 같은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행위 사실 그 자체를 서술한 문장, 사건을 재구성한 문장, 구조자의 병원 이송 상황, 실종자의 생사확인 등과 관련된 문장 등을 포함한다.

(2) 사고수습/대책

사고수습/대책 유목에는 “정부가 세월호 침몰 희생자의 장례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여야 양당 대표들은 세월호 침몰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특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2인 1조로 20개조가 편성돼 ‘릴레이 식’으로 수중 수색 작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와 같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의 대응책, 인양일정, 수색 계획 등과 관련된 문장 등을 포함한다.

(3) 사고관련 조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사고관련 조사 유목에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침몰원인을 추정, 발표한 결과, 세월호는 운행 중 맹골수도 지점에서 항로를 무리하게 변경, 이로 인해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며 전복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세월호는 지난 2012년 일본에서 건너온 뒤 위쪽의 객실을 늘렸습니다. 위쪽이 무거워지면서 무게 중심은 50센티미터 상승했습니다.”,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했던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 가운데 오늘까지 11명이 구속됐습니다.” 와 같은 세월호 침몰 원인/조사와 직·간접적 관련된 문장 등을 포함한다.

(4) 안전대책 점검

안전대책 점검 유목에는 “3개월에 걸친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한국선급이 실시한 세월호에 대한 정기검사 보고서입니다. 엔진과 실린더, 조타기 등 주요 설비를 포함한 200여 항목을 검사했지만 총평에는 지적 사항이나 유의 사항,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와 같은 세월호에 관련 안전성 검사나 차후에 나타날 안전대책 점검에 관련된 문장 등을 포함한

다.

(5) 사건묘사

사건 묘사 유목에는 “지금 50도 이상 좌현으로 기울어져 바다 위에 떠 있고, 함미 부분이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침몰하는 세월호 갑판 양쪽으로 구명정 보관함 수십 개가 장착돼 있습니다.”와 같은 뉴스방송 시 화면에 나오는 장면(실제 장면)을 말로 묘사한 문장 등을 포함한다.

(6) 휴먼에피소드

휴먼에피소드 유목 내에는 “진도 앞바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쌍둥이 형제가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 무사 귀환했습니다.”, “천안함 46용사의 유가족들이 30일 진도 체육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누리꾼들이 직접 쓰고 만든 추모시와 동영상이 올라와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온 국민이 권양 가족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지만, 베트남 출신의 어머니 29살 한모씨는 결국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왔습니다.” 와 같은 실종자, 유가족, 일반시민과 관련한 개인적 사연, 스토리, 일화, 그리고 좌절이나 희망 등을 통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기사 문장 등을 포함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7) 기타

기타 유목에는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6) 보도영상과 뉴스내용의 일치도

보도영상과 뉴스내용의 일치도 분석은 보도영상과 뉴스내용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재난상황의 경우,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도영상과 뉴스내용의 일치도는 중요한 분석 대상 중 하나이다.

본 연구의 분석유목은 선행연구(박형철, 2008; 이재승, 2011)[25]에서 사용했던 유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보도영상과 뉴스내용의 일치도는 각 문항에 대해 ‘매우 일치한

25) 박형철(2008)은 주관적 의견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내용과의 중복정도, 사건발생 장소와의 관계, 주제와 관련된 배경, 보도 주체의 신상, 주체의 활동 등으로 나누어 각각 20%의 비율을 적용해서 분석하였다.

다'(5점)에서부터 '매우 불일치한다'(1점)까지를 양극으로 하는 리커트형 5점 척도(Likert-type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 매우 일치한다.

보도영상과 내용의 일치도가 80% 이상의 경우이다.

(2) 어느 정도 일치한다.

보도영상과 내용의 일치도가 60% ~ 80% 사이에 있는 경우이다

(3) 보통이다.

보도영상과 내용의 일치도가 40% ~ 60% 사이에 있는 경우이다.

(4) 어느 정도 불일치하다.

보도영상과 내용의 일치도가 20% ~ 40% 사이에 있는 경우이다.

(5) 매우 불일치하다.

보도영상과 내용의 일치도가 20% 미만인 경우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7) 재난보도 뉴스내용의 보도방향

보도방향은 긍정, 대체 긍정, 중립, 대체 부정, 부정으로 5점 척도로 측정을 했다.

보도 방향은 우선 기사의 제목과 첫 문장, 끝 문장에서 결정을 했고, 불확실하면 기사 전체의 맥락을 보고 정했다.[26]

(1) 긍정 :

우호적인 논조이며 어떤 팩트(fact)에 대해 찬성을 표명하거나 혹은 찬성자 의견(긍정적 영향과 기대효과 등)을 더 많이 제시한 기사.

긍정유목에는 "너희들 먼저 탈출해라" 살신성인 박지영 씨, "더 구할 수 있었는데..." 학생 20여 명 살린 '용감한 승객들', "세월호 승객 돕자" 온 국민 온정 이어져, "한국을 위해 기도" 지구촌 곳곳 위로·응원 물결 등과 같은 희망, 기대, 긍정적인 기사를 말한다.

---

26) 기사의 제목, 첫문장, 끝문장에는 프레임 도구라고 불리는 핵심 사실들이 있다(de Vreese, 2004). 특히 제목은 뉴스내용을 요약해 독자의 주목을 끌고, 독자는 기사를 이해하거나 의견을 형성할 때 제목에 의존한다(정태철, 1995). 제목은 훌륭한 저널리즘의 기능을 한다(이승선, 2011).

(2) 대체 긍정 :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편의 주장도 담고 있는 기사 또는 반성적, 우려의 목소리를 포함한 기사.

대체 긍정 유목은 안산지역 행사 발길 '뚝'...간절한 '기원' 물결, '어서 돌아와 꾸짖어다오' 어른들 마지막 부탁,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고통 "함께 보듬어야", 단원고 여자 탁구팀의 '눈물의 우승', 다시 열린 단원고 교문..."의지하면 아픔 극복" 등과 같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기사를 말한다.

(3) 중립 :

어떤 팩트(fact)를 있는 그대로 객관성으로 서술한 기사를 말한다. 대부분 보도자료에 의존한 기사들이 다수이다. 그리고 기사에서 우호적 논조와 비판적 논조가 모두 들어있으면 비중을 따져서 판단했고, 비슷하면 중립적인 태도로 분류했다.

중립 유목은 진도 여객선 침몰, 4명 사망·284명 실종...수색작업 난항, "밤 10시경 물살 느려져 선체 본격 탐색...공기 주입 시도", 크레인 인양 어떻게 하나? 뒤집힌 선박 세우는 작업 선행돼야, 해경, 민관 합동 조사위 구성...사고 원인 다각도로 규명 등과 같은 중립적인 기사를 말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4) 대체 부정:

직·간접적으로 갈등/ 파문/ 비난/ 불만 등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거나 기사 내용에 대해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

대체 부정 유목은 오락가락 정보에 불신 가중...대통령 현장 찾아 가족 위로, 공기 주입, 부력 주머니 설치했지만...생존자 확인 '안갯속', '우울·불안' 후유증 시달리는 학생들...지속적 관리 필요, 잠수부 대규모 추입, 망치로 배 안에 신호 보냈지만... 등과 같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말한다.

(5) 부정 :

비판적인 논조이며 갈등/ 파문/ 비난/ 불만 등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거나 기사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 대체로 반대쪽의 진술이나 주장을 그대로 서술한 기사도 여기에 속한다.

부정 유목은 뒤바뀐 사망자..."마지막까지 통화했는데" 아버지 망연자실, '평형수 탱크' 사고 전부터 문제 있었다...선체 곳곳 결함 의혹, 오락가락...뒤죽박죽...믿지 못할 발표로 분노 키운 정부, 별도 본부 두고 따로 따로 브리핑...'컨트롤 타워'가 없다. 등

과 같은 부정적인 기사를 말한다.

제 3절 신뢰도 검증

분석 영상의 코딩에는 본 연구자와 현직 방송사 촬영기자 1명, 방송사 업무 경험이 있는 언론홍보학과 4학년 재학생 1명이 참여하였다. 코딩에 들어가기 전에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자와 다른 2명이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2일치 3개 방송 뉴스를 대상으로 분석유목과 코딩방법에 대해 사전 연습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였다. 즉 예비조사 결과, 일치도가 낮은 분석항목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 분석유목과 측정방법을 재조정하였다.

코딩결과는 각 방송사별로 20건의 기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코더 간의 신뢰도는 홀스티(Holsti)의 신뢰도 검증 공식[27]을 사용하였다.

$$\text{코더 간 신뢰도 CR} = \frac{3M}{N1+N2+N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M : 3명의 분석자간의 일치한 코딩수
N1 : 분석자 1이 코딩한 수
N2 : 분석자 2가 코딩한 수
N3 : 분석자 3이 코딩한 수

위와 같은 공식을 이용한 코더 간의 신뢰도 산출 결과는 <표 3-1>과 같다.

<표 3-1> 코더 간 항목별 신뢰도

항목 / 방송사	선택영상	보도영상 주제	보도영상 출처	취재원 출처	주제별 분류	보도방향	보도영상과 뉴스내용의 일치도
KBS	82%	90%	93%	98%	90%	95%	80%

27) Ole R, Hoslti,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Tower, 1978.

MBC	87%	95%	97%	95%	90%	85%	90%
JTBC	88%	90%	93%	95%	95%	90%	95%

제 4절 분석결과

1. 세월호 관련 방송보도의 일반적 특성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방송사들의 보도영상과 뉴스내용에 대해 KBS, MBC, JTBC의 메인 뉴스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세월호 관련 방송보도의 일반적 특성을 통해 재난뉴스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세월호 보도 관련 방송사간 보도영상 주제, 보도영상 출처, 보도영상의 인터뷰 유형 및 취재원의 차이 그리고 보도영상과 뉴스내용과의 일치도를 방송시기별로 나눠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방송사별로 보도주제 및 보도방향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초상권 침해를 하지는 않았는지, 빈도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방송사, 방송일, 방송일자, 방송시점

우리나라 방송의 재난보도는 재난 발생 직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관련 재난 상황을 보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급감하는 '소나기식 보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난발생 시, 방송은 그 매체가 갖는 광범위한 영향력으로 인해 사전예방 보도나 재난의 규모 및 피해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한다.

다음의 <표 3-2>에서는 세월호 관련 방송사, 방송일, 방송일자, 방송시점 보도건수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3-2> 방송사, 방송일, 방송일자, 방송시점

	방송사			방송일										방송일자		방송시점		
	KBS	MBC	JTBC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72 시간전	72 시간후	침몰 전	침몰 후	합계
빈도	328	360	275	87	131	128	121	118	95	76	72	67	68	346	617	218	745	963
%	34.1	37.4	28.6	9.0	13.6	13.3	12.6	12.3	9.9	7.9	7.5	7.0	7.1	35.9	64.1	22.6	77.4	100.0

세월호 관련 본 연구에서 사고 발생일인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 분석

된 총 영상은 963개였으며, 방송사별로는 'MBC'(37.4%)가 가장 많았고, 'KBS'(34.1%), 'JTBC'(28.6%) 순이었다. 방송일별로는 '17일'(13.6%)이 가장 많았고, '18일'(13.3%), '19일'(12.6%) 순이었다. 방송은 사고 이후 초반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 사고가 터지면 집중취재를 하다가 급격히 식어 버리는 냄비식 보도행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방송일을 세월호 사고 72시간 전후로 재분류하였는데, 72시간 동안 해경에서 단 1명도 구조하지 못한 것을 기준으로 16-18일까지를 전기로 그리고 19일-25일까지를 후기로 나누었다. 그 결과 세월호 사고 72시간 전(35.9%)에 비해 후(64.1%)에 더 많은 방송보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방송시점 역시 세월호 침몰 전후를 기준으로 후(77.4%)가 전(22.6%)에 비해 보다 많은 방송을 하고 있었다.

2) 보도영상 주제

TV뉴스는 인쇄매체와 달리 영상과 음향을 동반하기 때문에 자극적 또는 선정적인 경향을 보이기 쉽고 특히, 대규모 재난사고의 경우, 피해 상황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슬픔이나 피해의 참혹함이 강조되기 쉽다(송종길, 2003).

다음의 <표 3-3>과 <표 3-4>에서는 세월호 관련 보도영상 주제를 대분류와 소분류로 분류하여 알아보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3-3> 보도영상 주제(대분류)

보도영상 주제(대분류)		
	빈도	퍼센트(%)
바다사고 현장	309	32.1
피해자 구조/구출	102	10.6
세월호 사고수습 및 대책	88	9.1
세월호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소재	190	19.7
세월호 사고 여파	31	3.2
분향소 애도/오열	131	13.6
구호 및 지원활동	12	1.2
자료화면	66	6.9
기타	34	3.5
합계	963	100.0

세월호 관련 본 연구에서 보도영상들의 주제(대분류)는 총 963건이었고, '바다사고 현장'이 309(32.1%)로 가장 많았으며, '세월호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소재'(19.7%), '분향소 애도/오열'(13.6%), '피해자 구조/구출'(10.6%)순이었다.

'바다사고 현장' 영상은 현장 상황 진행에 대한 보도의 형태이며, 현장 상황진행 보

도량이 가장 많다는 것은 재난보도 역시 재난이라는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세월호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소재(19.7%)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이유는 <표3-4>에서 유병언 초점 관련조사/가족포함'(6.1%)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된 부분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표 3-4> 보도영상 주제(소분류)

	보도영상 주제(소분류)															합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빈도	10	61	183	19	8	79	19	13	55	8	13	61	39	59	23	961
%	1.0	6.3	19.0	2.0	0.8	8.2	2.0	1.4	5.7	0.8	1.4	6.3	4.1	6.1	2.4	
	⑯	⑰	⑱	⑲	⑳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빈도	22	14	56	9	47	19	4	7	45	45	45	6	8	20	9	100.0
%	2.3	1.5	5.8	0.9	4.9	2.0	0.4	0.7	4.7	4.7	4.7	0.6	0.8	2.1	0.9	

①세월호 선내 ②세월호 침몰/선외(세월호 포함-헬기샷, 바다샷) ③민/관/군 수색(세월호 미포함) ④선수(뱃머리) 화면 ⑤리프트 백(풍선)화면 ⑥승객 구조/구출(침몰현장 구조/구출) ⑦구조자 이송(진료/치료) ⑧희생자 이송 ⑨정부 측(회의/기자회견/브리핑) ⑩청해진 해운 측(회의/기자회견/브리핑) ⑪유족 측(가족대책본부, 항의 방문) ⑫정부 및 관련기업 관리소홀(과적/안전점검) ⑬세월호 관계 회사 압수수색/직원조사 ⑭유병언 초점 관련조사/가족포함(생가, 갤러리, 국내외 부동산, 소유회사, 구원파) ⑮ 기타 ⑯단원고(등교, 교실, 탁구선수, 교감자살 등) ⑰경제적 여파(동네 울상, 여행취소, 스미싱 피해) ⑱국내 분위기(분향, 영결식, 추모) ⑲국외 분위기(분향, 영결식, 추모) ⑳ 피해자, 유족 오열/항의 ㉑피해자, 유족의 유품, 핸드폰화면, SNS ㉒각종 물자 지원/ 기부금 모금 운동 ㉓현장 자원봉사 활동 ㉔세월호 침몰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화면(천안함사고, 씨랜드화재, 성수대교붕괴, 미국9.11테러, 세 월호 유사 선박 등) ㉕컴퓨터 그래픽CG, 글자, 문서, 미니어처 ㉖팽목항 방문(대통령, 총리, 정치인 등) ㉗유가족(먼 산 바라보는/체념) ㉘일반적인 팽목항/ 진도 체육관 ㉙일반적인 항구(유람선/선박 입출항, 사람들 탑승) ㉚기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세월호 관련 본 연구에서 보도영상들의 주제(소분류)는 총 961건이었고, '민/관/군 수색'이 183(19.0%)로 가장 많았으며, '승객 구조/구출'(8.2%), '세월호 침몰/선외'(6.3%), '정부 및 관련기업 관리소홀'(6.3%), '유병언 초점 관련조사/가족포함'(6.1%)순이었다.

3) 인물식별 유무

재난보도 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정신적인 공황상태에 빠져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게 된다. 언론 단체 공동으로 제정한 보도준칙 <제15조(선정적 보도 지양), 제18조(피해자 보호), 제19조(신상공개 주의), 제23조(과거 자료사용 자체)>에도 언론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신중한 자세로 접근할 것을 규정되어 있다.

다음의 <표 3-5>는 세월호 관련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인물식별 유무를 살펴보았다.

<표 3-5> 인물식별 유무

인물식별 유무				
	피해자 구조/구출/이송/치료		피해자, 유족 오열/항의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인물식별 가능	88	37.0	54	65.9
인물식별 불가능	150	63.0	28	34.1
합계	238	100.0	82	100.0

세월호 관련 본 연구에서 보도영상들에 나타난 인물들의 인물식별 유무를 알아본 결과, '피해자 구조/구출/이송/치료'의 경우 총 238건이었고, 인물식별 불가능(63.0%)이 가능(37.0%)에 비해 보다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피해자, 유족 오열/항의'의 경우 총 82건이었고, 인물식별 가능(65.9%)이 불가능(34.1%)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4) 보도영상 출처

재난보도 시 누구의 의해 영상이 촬영되고 활용되었는지에 따라서 보도영상의 신뢰,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기에 보도영상출처는 중요하다. 그리고 재난방송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영상소스의 한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영상이 재난보도에 활용이 된다.

다음의 <표 3-6>는 세월호 관련 보도영상 출처를 알아보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3-6> 보도영상 출처

보도영상 출처		
	빈도	**퍼센트(%)**
카메라 기자	732	76.0
정보원 제공	180	18.7
시청자 제보	12	1.2
CG	34	3.5
기타영상	5	0.5
합계	963	100.0

세월호 관련 본 연구에서 보도영상들의 출처는 총 963건이었고, '카메라 기자'가 732(76.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정보원 제공'(18.7%), 'CG'(3.5%), '시청자 제보'(1.2%)순이었다. 보도영상에서 '정보원 제공' 영상이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인터뷰 유형, 취재원 출처

모든 기사는 기자가 전하는 구체적인 사실(fact)과 취재원으로 구성된다(이행원,

1999). 따라서 기자들의 취재원을 분석해 보면, 정부기관 등과 같은 공식적 채널의 의존도 등 특정사안에 대한 보도관행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건에서는 언론이 어느 집단의 의견과 주장을 대변하고자 하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한국언론재단, 2001; 고영철, 2003 재인용).

다음의 <표 3-7>과 <표 3-8>은 세월호 관련 인터뷰 유형과 취재원 출처를 살펴보았다.

<표 3-7> 인터뷰 유형

인터뷰 유형		
	빈도	퍼센트(%)
①공식적 인터뷰	302	31.0
②비공식적 인터뷰	560	58.0
① + ②	101	11.0
합계	963	100.0

세월호 관련 본 연구에서 보도영상들에 나타난 인터뷰 유형을 알아본 결과, 총 862건이었고, 비공식적 인터뷰(65.0%)가 공식적 인터뷰(35.0%)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비공식적 인터뷰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표 3-8>의 취재원 출처에서 '구조자/유가족', '기자취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 부분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표 3-8> 취재원 출처

취재원 출처		
	빈도	퍼센트(%)
중앙정부	178	18.6
국회/정당	6	.6
각계 전문가 및 선박 안전점검 관계자	150	15.7
전/현 청해진 해운 측 및 해운조합관계자	37	3.9
민간구조대/군인	24	2.5
구조자/유가족	108	11.3
선박직 직원	80	8.4
사회단체, 자원봉사 및 학교 관계자	13	1.4
일반시민/학생/종교인 등	84	8.8
외국인	12	1.3
기자취재	255	26.7
유병언 관계(장남, 차남, 측근) 및 영농조합 관련 등	9	.9
합계	956	10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세월호 관련 본 연구에서 보도영상들에 나타난 취재원의 출처를 살펴본 결과, 총 956건이었고, '기자취재'가 255(26.7%)로 가장 많았으며, '중앙정부'(18.6%), '각계 전문가 및 선박 안전점검 관계자'(15.7%), '구조자/유가족'(11.3%)순이었다.

기자취재가 다른 정보원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특보 방송으로 인해 방송시간은 늘어났지만 그에 상응하는 취재원 확보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뷰 없이 단독으로 기자가 출연하여 보도하는 앵커-현장기자 중계차 참여 연결 비중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6) 보도주제 내용

재난발생 시, 방송은 그 매체가 갖는 광범위한 영향력으로 인해 사전예방 보도나 재난의 규모 및 피해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한다. 동시에 재난 이후의 대처방안과 원인 및 책임규명, 사후대책 마련 등 방재기능도 수행해야 한다(이경미·최낙진, 2008).

다음의 <표 3-9>는 세월호 관련 보도주제 내용을 알아보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3-9> 보도주제 내용

보도주제 내용		
	빈도	퍼센트(%)
사고종합	146	15.2
사고 수습/대책	219	22.8
사고관련 조사	291	30.3
안전대책 점검	61	6.3
사건묘사	65	6.8
휴먼 에피소드	170	17.7
경제/교육계 동향	9	0.9
합계	961	100.0

세월호 관련 본 연구에서 보도주제 내용은 총 961건이었고, '사고관련 조사'가 291(30.3%)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 수습/대책'(21.9%), '휴먼 에피소드'(17.7%), '사고종합'(15.2%)순이었다.

'사고관련 조사' 유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유는 <표 3-3>에서 세월호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소재' 유목이 높게 측정된 부분에서, 다음으로 높은 '사고 수습/대책 유목'은 <표 3-4>에서 많은 수의 실종자를 찾지 못해 '민/관/군 수색' 과 '승객 구조/구출' 유목이 높게 측정된 부분에서, 세 번째로 높은 '휴먼 에피소드 유목'은 국

내외적으로 스포츠스타, 연애인, 일반시민 등 이번 사고에 대한 추모행렬이 끊이지 않았다는 데에 기인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7) 아이템 길이, 총 컷수, 보도방향, 내용일치도

다음의 <표 3-10>는 세월호 관련 아이템 길이, 총 컷수, 보도방향, 내용일치도를 살펴보았다.

<표 3-10> 아이템 길이, 총 컷수, 보도방향, 내용일치도

기술통계			
	N	평균	표준편차
아이템길이	953	79.02	16.171
총컷수	963	20.06	5.545
보도방향(역코딩)	961	2.64	.859
내용일치도(역코딩)	962	4.39	.893

세월호 관련 보도영상에 대한 해당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 '아이템 길이'의 전체 평균은 79.02초로 나타났다. '총 컷수'의 경우 20.06컷이었으며, '보도방향'의 경우 2.64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보도영상은 4.39로 보도영상과 뉴스내용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관련 보도영상 아이템 길이는 전체 평균 79.02초(1분 19초)로 일반뉴스영상[28] 아이템 길이 평균 105.22초(1분 45초)보다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샷의 평균 지속시간도 세월호 관련 보도영상이 평균 3.93초(79.02/20.06)로 일반뉴스 평균 4.24초(105.22/24.86)보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아이템 길이와 샷의 길이가 짧아졌다는 결과는 재난보도 시 객관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구성돼야 할 보도영상이 흥미위주로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으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빠른 뉴스영상으로 인해 객관성, 신뢰도를 낮게 인식한다(이창훈, 2008).

보도방향이 부정적으로 나온 이유는 <표 3-9>의 보도주제 내용에서 '사고관련 조사'와 '사고 수습/대책'유목이 높게 측정된 것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많은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실종자 수습과 대책도 오락가락 하며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검찰은 선장과 항해사를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과 책임을 추궁했다[29]. 따라서 방송사들은 정부의 안전관리 부실 보도와 검찰의 선박직

28) 정민환(2012)은 「방송뉴스의 영상구성형식에 따른 수용자 인식」에서 방송뉴스를 구성하는 뉴스영상요소와 방송뉴스의 영상구성박식에 따른 수용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연구를 하였다. 방송3사(KBS, MBC, SBS) 뉴스아이템 평균 길이는 105.22초, 뉴스아이템 평균 샷의 수는 24.86회, 샷 평균 지속시간은 4.24초로 나타났다.

29) KBS <유병언, 농업 법인 위장해 '부동산 투기' 의혹(4월 25일)>, MBC <청해진 해운, 안전 교육에

직원들에 대한 사고원인에 대한 책임추궁 보도로 인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를 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2. 보도영상 주제에 대한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론이 구성한 뉴스를 통해서 사건을 인식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언론보도를 통해 재난의 실상을 파악하게 된다. 또한 언론보도는 어떤 주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다른 사회적 의미를 파행시킬 수 있다.

다음의 <표 3-11>과 <표 3-12>에서는 세월호 보도관련 방송사간 보도영상주제 대분류와 소분류에 대해서, <표 3-13>에서는 세월호 보도관련 방송사간 아이템 길이 및 총 컷수 에 대해서, <표 3-14>에서는 세월호 보도관련 방송사간 방송일자별/방송시점별 보도영상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1) 방송사간 보도영상 주제 분석결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3-11> 방송사간 보도영상 주제

(***p<.001, **p<.01, *p<.05)

			방송사-보도영상 주제										x^2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합계		
방송사	KBS	빈도	100	43	30	64	14	40	6	22	9	328	13.866	.609
		%	30.5	13.1	9.1	19.5	4.3	12.2	1.8	6.7	2.7	100.0		
	MBC	빈도	125	33	29	75	10	45	5	24	14	360		
		%	34.7	9.2	8.1	20.8	2.8	12.5	1.4	6.7	3.9	100.0		
	JTBC	빈도	84	26	29	51	7	46	1	20	11	275		
		%	30.5	9.5	10.5	18.5	2.5	16.7	0.4	7.3	4.0	100.0		

①바다사고현장 ②피해자 구조구출 ③세월호사고 수습 및 대책 ④세월호사고 원인조사 및 책임소재
⑤세월호사고 여파 ⑥분향소 애도/오열 ⑦구호 및 지원활동 ⑧자료화면 ⑨기타

우선 세 방송사간 보도영상주제별 보도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x^2=13.866, p=.609>.05). 전체적으로 방송사간 보도영상주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방송사 구분 없이 세월호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모두 유사하게 처리하고 있었는데, 세 방송사 모두 '바다사고현장' 관련 영상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고, '세월호사고 원인조사 및 책임소재', '분향소 애도/오열' 그리고 '피해자 구조구출' 관련 영상 등을 많이 다루고 있었다.

54만원 썼다...비상훈련도 '부실'(4월 19일)>, JTBC<해운조합 압수수색...검찰, '해수부 마피아' 정조준(4월 23일)>

‘바다사고현장’ 영상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재난보도에서 재난이라는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재난 시 영상소스(카메라기자 촬영영상, 현장중계차, 동영상, 컴퓨터 그래픽(CG) 등 기타화면)[30]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고현장’ 영상을 반복 사용했음을 알수 있다. 두 번째로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소재’ 비중이 높게 나타난 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측근에 대해 방송사들마다 방송시간을 많이 할애한 부분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표 3-12> 방송사간 보도영상 주제별 컷수

(***p<.001, **p<.01, *p<.05)

구분	방송사	N	방송사-주제별 컷수			
			평균	sd	F	P
민/관/군 수색	KBS	89	10.09	5.189	3.282	.039*
	MBC	93	10.60	5.850		
	JTBC	64	8.36	5.464		
선수(뱃머리) 화면	KBS	25	4.40	1.803	5.493	.006**
	MBC	37	6.14	2.840		
	JTBC	23	4.39	2.169		
정부 측 (회의/기자회견/브리핑)	KBS	31	7.10	4.118	3.998	.022*
	MBC	31	10.68	6.085		
	JTBC	30	8.63	4.575		
청해진 해운 측 (회의/기자회견/브리핑)	KBS	6	8.17	2.401	6.573	.011*
	MBC	4	13.75	7.365		
	JTBC	6	4.50	1.517		
유족 측 (가족대책본부, 항의 방문)	KBS	7	4.71	2.059	4.997	.017*
	MBC	2	14.00	4.243		
	JTBC	14	8.50	4.451		
유병언 초점 관련조사/가족포함(생가, 갤러리, 국내외 부동산, 소유회사, 구원파)	KBS	24	12.17	4.797	3.441	.038*
	MBC	21	16.29	5.542		
	JTBC	18	16.33	7.963		
경제적 여파(동네 울상, 여행취소, 스미싱 피해)	KBS	8	12.25	6.541	4.963	.027*
	MBC	5	19.00	2.828		
	JTBC	2	6.00	1.414		
피해자, 유족의 유품, 핸드폰화면, SNS	KBS	15	5.80	3.529	4.345	.022*
	MBC	6	10.83	5.601		
	JTBC	11	6.00	2.608		
컴퓨터 그래픽CG, 글자, 문서, 미니어처	KBS	90	4.43	1.824	7.678	.001**
	MBC	41	6.05	3.170		
	JTBC	63	5.63	2.76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0) · 카메라기자가 촬영한 영상 : 방송사에 소속되어 있는 카메라가 기자가 직접 촬영한 화면.
· 현장중계차 : 스튜디오에서 떨어져 있는 외부에서 스포츠, 행사 실황 등을 생중계, 녹화중계, 현장녹화(공개방송)하기 위하여 방송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싣고 현지에 나가서 확보한 화면.
· 동영상 : 동영상은 넓은 의미로 영상과 사진을 모두 포함한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제보영상과 제공영상을 말한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영상을 제보영상이라 하고 경찰서나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서 웹 하드나 이메일의 형태로 제공하는 영상을 제공영상이라 한다.
· 컴퓨터 그래픽(CG) : 컴퓨터 그래픽(computer graphic)을 활용한 화면.

앞서 9가지로 대분류된 보도영상주제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이를 30가지로 소분류하여 주제별 컷 수를 분석하였다. 이 중 방송사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주제는 총 9개였다. 바다사고현장(민/관/군 수색, 뱃머리 화면), 피해자 구조/구출/이송/치료(정부 측, 청해진 해운 측, 유족 측), 재난사고 원인조사 및 책임규명(유병언 초점 관련조사/가족포함), 세월호 사고 여파/영향(경제적 여파), 분향소/오열/애도의 물결(피해자, 유족의 유품, 핸드폰화면, SNS), 자료화면(컴퓨터 그래픽 CG, 글자, 문서, 미니어처) 등에서 해당 유목들이 방송사간 상이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에서 Waller-Duncan의 다중비교 값을 확인해본 결과, '민/관/군 수색' 영상의 경우 MBC가 가장 많은 컷을 사용했고, KBS와 JTBC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그 유사성은 상대적으로 MBC와 KBS가 높았다. 다음으로 '선수(뱃머리) 화면' 및 '정부 측', '청해진 해운 측', '유족 측' 관련 영상의 경우 모두 MBC가 가장 많은 컷을 사용했고, 통계적으로 그 유사성은 상대적으로 KBS와 JTBC가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유병언 초점 관련조사/가족포함' 관련 영상의 경우 JTBC가 가장 많은 컷을 사용했고, 통계적으로 그 유사성은 상대적으로 MBC와 KBS가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여파'와 '피해자, 유족의 유품, 핸드폰화면, SNS' 관련 영상의 경우 MBC가 가장 많은 컷을 사용했고, 통계적으로 그 유사성은 상대적으로 KBS와 JTBC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그래픽CG, 글자, 문서, 미니어처' 관련 영상의 경우 MBC가 가장 많은 컷을 사용했고, 통계적으로 그 유사성은 상대적으로 MBC와 JTBC가 높게 나타났다.

<표 3-13> 방송사간 아이템 길이 및 총 컷수

(***p<.001, **p<.01, *p<.05)

구분	방송사	N	방송사-아이템 길이/총 컷수			
			평균	sd	F	P
아이템 길이	KBS	323	82.95	10.841	36.295	.000***
	MBC	358	80.50	15.082		
	JTBC	272	72.41	20.351		
총 컷수	KBS	328	20.34	4.805	10.527	.000***
	MBC	360	20.76	5.257		
	JTBC	275	18.80	6.470		

마지막으로 방송사간 보도영상주제들의 아이템 길이 및 총 컷수를 살펴보았는데, 두 변인 모두 방송사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 내에서 상호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아이템 길이: F=36.295, p=.000<.001, 총 컷수: F=10.527, p=.000<.001). KBS와

MBC가 비슷한 수준에서 JTBC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이템 길이는 길고, 총 컷수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에서 Waller-Duncan의 다중비교 값을 확인해본 결과, 방송사간 아이템 길이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총 컷수의 경우 확연하게 KBS와 MBC가 상호 유사성을 높게 나타내고 있었다.

빠른 영상속도는 뉴스영상의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뉴스의 객관성, 신뢰도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BS와 MBC가 JTBC에 비하여 '총 컷수'가 확연하게 많이 나타난 점으로 뉴스영상의 역동적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수용자들로 하여금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2) 방송시기별 분석결과

<표 3-14> 방송사간 방송일자별/방송시점별 보도영상 주제

(***p<.001, **p<.01, *p<.05)

			방송사-방송일자-보도영상 주제										χ^2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합계		
KBS	72시간 내	빈도	50	24	9	8	5	17	1	6	1	121	36.007	.000***
		%	41.3	19.8	7.4	6.6	4.1	14.0	0.8	5.0	0.8	100.0		
	72시간 후	빈도	50	19	21	56	9	23	5	16	8	207		
		%	24.2	9.2	10.1	27.1	4.3	11.1	2.4	7.7	3.9	100.0		
MBC	72시간 내	빈도	58	20	11	7	6	18	1	10	1	132	46.064	.000***
		%	43.9	15.2	8.3	5.3	4.5	13.6	0.8	7.6	0.8	100.0		
	72시간 후	빈도	67	13	18	68	4	27	4	14	13	228		
		%	29.4	5.7	7.9	29.8	1.8	11.8	1.8	6.1	5.7	100.0		
JTBC	72시간 내	빈도	34	16	10	7	3	12	0	3	8	93	32.395	.000***
		%	36.6	17.2	10.8	7.5	3.2	12.9	0	3.2	8.6	100.0		
	72시간 후	빈도	50	10	19	44	4	34	1	17	3	182		
		%	27.5	5.5	10.4	24.2	2.2	18.7	0.5	9.3	1.6	100.0		
			방송사-방송시점-보도영상 주제											
KBS	침몰 전	빈도	29	21	5	4	1	10	1	3	1	75	33.214	.000***
		%	38.7	28.0	6.7	5.3	1.3	13.3	1.3	4.0	1.3	100.0		
	침몰 후	빈도	71	22	25	60	13	30	5	19	8	253		
		%	28.1	8.7	9.9	23.7	5.1	11.9	2.0	7.5	3.2	100.0		
MBC	침몰 전	빈도	35	18	9	4	3	11	0	5	1	86	37.301	.000***
		%	40.7	20.9	10.5	4.7	3.5	12.8	0	5.8	1.2	100.0		
	침몰 후	빈도	90	15	20	71	7	34	5	19	13	274		
		%	32.8	5.5	7.3	25.9	2.6	12.4	1.8	6.9	4.7	100.0		
JTBC	침몰 전	빈도	22	12	3	1	2	10	0	2	5	57	30.636	.000***
		%	38.6	21.1	5.3	1.8	3.5	17.5	0	3.5	8.8	100.0		
	침몰 후	빈도	62	14	26	50	5	36	1	18	6	218		
		%	28.4	6.4	11.9	22.9	2.3	16.5	0.5	8.3	2.8	100.0		

①바다사고현장 ②피해자 구조구출 ③세월호사고 수습 및 대책 ④세월호사고 원인조사 및 책임소재
⑤세월호사고 여파 ⑥분향소 애도/오열 ⑦구호 및 지원활동 ⑧자료화면 ⑨기타

방송사별로 방송시기별(방송일자/방송시점) 보도영상 주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방송시기(사고발생 72시간 전후 및 세월호 침몰 전후) 모두 상호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방송일자-KBS: $\chi 2=36.007$, $p=.000<.001$, MBC: χ

2=46.064, p=.000<.001, JTBC: χ2=32.395, p=.000<.001, 방송시점-KBS: χ2=33.214, p=.000<.001, MBC: χ2=37.301, p=.000<.001, JTBC: χ2=30.636, p=.000<.001). 각각의 방송사별로 방송시기별 뚜렷한 전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변화 형태는 방송사 모두 비슷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도영상은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었으며, 그 변화는 사고발생 72시간 전후를 비교하면 '바다사고현장' 영상 비율은 줄어든 반면, '세월호사고 원인조사 및 책임소재' 관련 영상 비율은 늘었다. 세월호 침몰 전후 역시 '바다사고현장' 영상 비율은 줄어든 반면, '세월호사고 원인조사 및 책임소재' 관련 영상 비율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 '피해자 구조구출' 관련 영상비율 역시 함께 줄어들고 있었다.

세월호사고 전후 '세월호사고 원인조사 및 책임소재' 영상의 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선박직 직원 검찰 조사', '관-업계 간의 유착관계' 그리고 '재난대책기구의 문제점'에 관한 보도의 증거로 꼽을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 조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다소 눈에 띄는 부분은 JTBC는 두 방송사와 비교하여 그 변화 형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 주요 보도영상의 변화와 동시에 다른 보도영상의 변화도 함께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고발생 72시간 전후로 '피해자 구조구출'(줄어듬), '분향소 애도/오열'(늘어남), '자료화면'(늘어남) 관련 영상 역시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세월호 침몰 전후로는 '세월호사고 수습 및 대책'(늘어남), '자료화면'(늘어남) 관련 영상 역시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보도영상 출처에 대한 분석결과

일반적인 보도뉴스 상황에서는 영상과 편집을 책임지는 카메라기자가 영상을 촬영하여 영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재난보도뉴스의 촬영에서 현실의 현장은 '결정적인 순간'이 지난 뒤에 취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뉴스 제작자들은 수용자의 관심을 끄는 그럴 듯한 영상이미지를 선호하게 된다(정민환, 2012).

다음의 <표 3-15>는 세월호 보도관련 방송사간 보도영상출처에 대해서, <표 3-16>은 세월호 보도관련 방송사간 방송일자별/방송시점별 보도영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1) 방송사간 보도영상출처 분석결과

<표 3-15> 방송사간 보도영상 출처

(***p<.001, **p<.01, *p<.05)

			방송사-보도영상 출처						χ^2	p
			카메라 기자	정보원 제공	시청자 제보	CG	기타영상	합계		
방송사	KBS	빈도	261	55	4	7	1	328	33.313	.000***
		%	79.6	16.8	1.2	2.1	0.3	100.0		
	MBC	빈도	247	95	2	13	3	360		
		%	68.6	26.4	0.6	3.6	0.8	100.0		
	JTBC	빈도	224	30	6	14	1	275		
		%	81.5	10.9	2.2	5.1	0.4	100.0		

세 방송사간 보도영상 출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χ 2=33.313, p=.000<.001). 전체적으로 방송사간 보도영상 출처는 주로 '카메라 기자'와 '정보원 제공'으로 나타났는데, 그 정도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방송사 상호간을 비교하면 보도영상 출처 중 '카메라 기자'의 비율은 JTBC가 가장 높았고, '정보원 제공'은 다른 방송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MBC가 높게 나타났다.

위의 <표 3-11>의 방송사간 보도영상주제 분석결과를 보면 ①'바다사고현장' 영상에서 MBC(34.7%)는 KBS(30.5%)와 JTBC(30.5%)보다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표 3-11>, <표3-15>를 비교하면 MBC는 '바다사고현장'에서 정보원 제공 영상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방송시기별 보도영상 출처 분석결과

<표 3-16> 방송사간 방송일자별/방송시점별 보도영상 출처

(***p<.001, **p<.01, *p<.05)

			방송사-방송일자-보도영상 출처						χ^2	p
			카메라 기자	정보원 제공	시청자 제보	CG	기타영상	합계		
KBS	72시간 내	빈도	86	30	2	2	1	121	11.318	.023*
		%	71.1	24.8	1.7	1.7	0.8	100.0		
	72시간 후	빈도	175	25	2	5	0	207		
		%	84.5	12.1	1.0	2.4	0	100.0		
MBC	72시간 내	빈도	80	45	0	7	0	132	11.179	.025*
		%	60.6	34.1	.0	5.3	0	100.0		
	72시간 후	빈도	167	50	2	6	3	228		
		%	73.2	21.9	0.9	2.6	1.3	100.0		
JTBC	72시간 내	빈도	78	9	3	3	0	93	2.469	.650
		%	83.9	9.7	3.2	3.2	0	100.0		
	72시간 후	빈도	146	21	3	11	1	182		
		%	80.2	11.5	1.6	6.0	0.5	100.0		
			방송사-방송시점-보도영상 출처							
KBS	침몰 전	빈도	46	25	2	1	1	75	25.312	.000***
		%	61.3	33.3	2.7	1.3	1.3	100.0		
	침몰 후	빈도	215	30	2	6	0	253		
		%	85.0	11.9	0.8	2.4	0	100.0		

MBC	침몰 전	빈도	50	33	0	3	0	86	9.528	.049*
		%	58.1	38.4	0	3.5	0	100.0		
	침몰 후	빈도	197	62	2	10	3	274		
		%	71.9	22.6	0.7	3.6	1.1	100.0		
JTBC	침몰 전	빈도	44	9	3	1	0	57	6.693	.153
		%	77.2	15.8	5.3	1.8	0	100.0		
	침몰 후	빈도	180	21	3	13	1	218		
		%	82.6	9.6	1.4	6.0	0.5	100.0		

방송사별로 방송시기별 보도영상 출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방송일자와 방송시점 전후로 KBS와 MBC에서 상호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방송일자-KBS: $\chi2=11.318$, $p=.023<.05$, MBC: $\chi2=11.179$, $p=.025<.05$, 방송시점-KBS: $\chi2=25.312$, $p=.000<.001$, MBC: $\chi2=9.518$, $p=.049<.05$). 해당 방송사들은 방송시기별 뚜렷한 전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보도영상의 그 변화 형태는 두 방송사 모두 비슷하였다. 사고발생 72시간 전후 및 세월호 침몰 전후 모두 '카메라 기자'의 비율은 늘어난 반면, '정보원 제공'의 비율은 줄었다. JTBC의 경우 방송시기 전후로 상대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정보원을 활용하고 있었다.

4. 인터뷰 유형 및 취재원에 대한 분석결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정보원은 사건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어떤 정보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사 내용의 흐름과 주도권을 확보할 수도 있으며 기사 내용에 대한 신뢰나 공신력 확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경미·최낙진, 2006).

다음의 <표 3-17>와 <표 3-18>에서는 세월호 보도관련 방송사간 인터뷰유형과 취재원출처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표 3-19>와 <표 3-20>에서는 세월호 보도관련 방송사간 방송일자별/방송시점별 인터뷰 유형과 취재원 출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1) 방송사간 인터뷰 유형 및 취재원 분석결과

<표 3-17> 방송사간 인터뷰유형

(***p<.001, **p<.01, *p<.05)

			방송사-인터뷰유형			$\chi2$	p
			공식적 인터뷰	비공식적 인터뷰	합계		
방송사	KBS	빈도	122	161	283	12.180	.002**
		%	43.1	56.9	100.0		
	MBC	빈도	102	220	322		
		%	31.7	68.3	100.0		
	JTBC	빈도	78	179	257		
		%	30.4	69.6	100.0		

세 방송사간 인터뷰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x2=12.180, p=.002<.01). 전체적으로 방송사간 인터뷰 유형은 '공식적 인터뷰' 보다는 '비공식적 인터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 정도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방송사 상호간을 비교하면 인터뷰 유형 중 '공식적 인터뷰'의 비율은 KBS가 가장 높았고, '비공식적 인터뷰'는 다른 방송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JTBC가 높게 나타났다.

'공식적인 인터뷰' 가 높게 나타났다는 부분은 방송사들 마다 정부와 전문가 인터뷰를 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공식적 인터뷰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취재의 편이성, 정보의 공신력에 대한 신념, 뉴스 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방송사 정보망이나 기자 파견 시스템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정수영·구지혜, 2010).

<표 3-18> 방송사간 취재원 출처

(***p<.001, **p<.01, *p<.05)

			방송사-취재원 출처													χ^2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합계		
방송사	KBS	빈도	58	1	67	21	10	43	24	6	38	4	49	4	325	69.067	.000***
		%	17.8	0.3	20.6	6.5	3.1	13.2	7.4	1.8	11.7	1.2	15.1	1.2	100.0		
	MBC	빈도	69	3	55	9	11	31	31	6	22	8	109	2	356		
		%	19.4	0.8	15.4	2.5	3.1	8.7	8.7	1.7	6.2	2.2	30.6	0.6	100.0		
	JTBC	빈도	51	2	28	7	3	34	25	1	24	0	97	3	275		
		%	18.5	0.7	10.2	2.5	1.1	12.4	9.1	0.4	8.7	0	35.3	1.1	100.0		

①중앙정부 ②국회/정당 ③각계 전문가 및 선박 안전점검 관계자 ④전/현 청해진 해운 측 및 해운조합 관계자 ⑤민간구조대/군인 ⑥구조자/유가족 ⑦전 세월호 선박직원 및 선박직 직원 ⑧사회단체, 자원봉사 및 학교 관계자 ⑨일반시민/학생/종교인 등 ⑩외국인 ⑪기자취재 ⑫유병언 관계(장남, 차남, 측근) 및 영농조합/세월호관련기업/토지명의 대여

앞선 인터뷰 유형에 대한 통계검증에 이어 방송사간 취재원 출처에 대한 통계분석을 진행한 결과, 상호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x2=69.067, p=.000<.001). 전체적으로 방송사간 취재원 출처는 주로 '기자취재', '중앙정부', '각계 전문가 및 선박 안전점검 관계자' 그리고 '구조자/유가족' 등으로 나타났는데, 그 정도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KBS는 상대적으로 '각계 전문가 및 선박 안전점검 관계자'가 많은 반면 MBC와 JTBC는 상대적으로 '기자취재'가 많았는데, 그 중 JTBC의 '기자취재' 비중도가 높은 편이었다.

JTBC가 상대적으로 '기자취재' 비중도가 높게 나온 부분은 위의 <표 3-17>인터뷰 유형에서 비공식적 인터뷰 유형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KBS와 MBC는 앵커-현장기자 연결에서 앵커의 질문 하나에 현장기자 답변으로 마무리를 하는 반면에 JTBC는 2-3개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심층적인 현장상황을 전달하려했다. 따라서 JTBC가 '기자취재' 비중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현장보도(앵커-현장기자)는 모든 게이트키퍼를 최대한 배제시켜 정보원을 있는 그

대로 수용자에게 연결시켜 줌으로써 보도내용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한 전파매체의 위력과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보도양식이라 할 수 있다(윤재홍, 1998).

2) 방송시기별 인터뷰 유형 및 취재원 분석결과

<표 3-19> 방송사간 방송일자별/방송시점별 인터뷰 유형

(***p<.001, **p<.01, *p<.05)

			방송사-방송일자-인터뷰 유형			χ^2	p
			공식적 인터뷰	비공식적 인터뷰	합계		
KBS	72시간 내	빈도	45	63	108	.148	.713
		%	41.7	58.3	100.0		
	72시간 후	빈도	77	98	175		
		%	44.0	56.0	100.0		
MBC	72시간 내	빈도	39	86	125	.021	.903
		%	31.2	68.8	100.0		
	72시간 후	빈도	63	134	197		
		%	32.0	68.0	100.0		
JTBC	72시간 내	빈도	18	69	87	5.807	.021*
		%	20.7	79.3	100.0		
	72시간 후	빈도	60	110	170		
		%	35.3	64.7	100.0		
			방송사-방송시점-인터뷰 유형				
KBS	침몰 전	빈도	28	38	66	.016	.999
		%	42.4	57.6	100.0		
	침몰 후	빈도	94	123	217		
		%	43.3	56.7	100.0		
MBC	침몰 전	빈도	24	56	80	.138	.782
		%	30.0	70.0	100.0		
	침몰 후	빈도	78	164	242		
		%	32.2	67.8	100.0		
JTBC	침몰 전	빈도	9	45	54	6.055	.013*
		%	16.7	83.3	100.0		
	침몰 후	빈도	69	134	203		
		%	34.0	66.0	100.0		

방송사별로 방송시기별 인터뷰 유형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방송일자와 방송시점 전후로 유일하게 JTBC만이 상호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방송일자-JTBC:$\chi 2=5.807$, $p=.021<.05$, 방송시점-JTBC:$\chi 2=6.055$, $p=.013<.05$). KBS와 MBC는 방송시기 전후로 별다른 변화 없이 비슷한 비율로 인터뷰 유형을 나타내는 반면 JTBC의 경우 사고발생 72시간 전후 및 세월호 침몰 전후 모두에서 이전에 비해 이후에 '공식적 인터뷰' 비율을 늘리고 있었다.

<표 3-20> 방송사간 방송일자별/방송시점별 취재원 출처

(***p<.001, **p<.01, *p<.05)

			방송사-방송일자-취재원 출처													χ_2	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합계		
KBS	72시간 내	빈도	16	0	26	8	4	26	6	3	7	3	20	0	119	25.863	.007**
		%	13.4	0	21.8	6.7	3.4	21.8	5.0	2.5	5.9	2.5	16.8	0	100.0		
	72시간 후	빈도	42	1	41	13	6	17	18	3	31	1	29	4	206		
		%	20.4	0.5	19.9	6.3	2.9	8.3	8.7	1.5	15.0	0.5	14.1	1.9	100.0		
MBC	72시간 내	빈도	22	1	19	6	2	25	9	2	1	4	39	0	130	44.188	.000***
		%	16.9	0.8	14.6	4.6	1.5	19.2	6.9	1.5	0.8	3.1	30.0	0	100.0		
	72시간 후	빈도	47	2	36	3	9	6	22	4	21	4	70	2	226		
		%	20.8	0.9	15.9	1.3	4.0	2.7	9.7	1.8	9.3	1.8	31.0	0.9	100.0		
JTBC	72시간 내	빈도	8	1	8	2	0	17	4	1	4	0	48	0	93	34.494	.000***
		%	8.6	1.1	8.6	2.2	0	18.3	4.3	1.1	4.3	0	51.6	0	100.0		
	72시간 후	빈도	43	1	20	5	3	17	21	0	20	0	49	3	182		
		%	23.6	0.5	11.0	2.7	1.6	9.3	11.5	0	11.0	0	26.9	1.6	100.0		
			방송사-방송시점-취재원 출처														
KBS	침몰 전	빈도	9	0	16	4	1	22	4	2	1	2	13	0	74	35.795	.000***
		%	12.2	0	21.6	5.4	1.4	29.7	5.4	2.7	1.4	2.7	17.6	0	100.0		
	침몰 후	빈도	49	1	51	17	9	21	20	4	37	2	36	4	251		
		%	19.5	0.4	20.3	6.8	3.6	8.4	8.0	1.6	14.7	0.8	14.3	1.6	100.0		
MBC	침몰 전	빈도	14	1	12	3	2	19	2	1	1	2	28	0	85	35.981	.000***
		%	16.5	1.2	14.1	3.5	2.4	22.4	2.4	1.2	1.2	2.4	32.9	0	100.0		
	침몰 후	빈도	55	2	43	6	9	12	29	5	21	6	81	2	271		
		%	20.3	0.7	15.9	2.2	3.3	4.4	10.7	1.8	7.7	2.2	29.9	0.7	100.0		
JTBC	침몰 전	빈도	3	1	4	2	0	10	3	1	3	0	30	0	57	24.096	.007**
		%	5.3	1.8	7.0	3.5	0	17.5	5.3	1.8	5.3	0	52.6	0	100.0		
	침몰 후	빈도	48	1	24	5	3	24	22	0	21	0	67	3	218		
		%	22.0	0.5	11.0	2.3	1.4	11.0	10.1	0	9.6	0	30.7	1.4	100.0		

①중앙정부 ②국회/정당 ③각계 전문가 및 선박 안전점검 관계자 ④전/현 청해진 해운 측 및 해운조합관계자 ⑤민간구조대/군인 ⑥구조자/유가족 ⑦전 세월호 선박직원 및 선박직 직원 ⑧사회단체, 자원봉사 및 학교 관계자 ⑨일반시민/학생/종교인 등 ⑩외국인 ⑪기자취재 ⑫유병언 관계(장남, 차남, 측근) 및 영농조합/세월호관련기업/토지명의 대여

방송사별로 방송시기별 취재원 출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방송일자와 방송시점 전후 모든 방송사에서 상호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방송일자-KBS: $\chi2=25.863$, $p=.007<.01$, MBC: $\chi2=44.188$, $p=.000<.001$, JTBC: $\chi2=34.494$, $p=.000<.001$, 방송시점-KBS: $\chi2=35.795$, $p=.000<.001$, MBC: $\chi2=35.981$, $p=.000<.001$, JTBC: $\chi2=24.096$, $p=.007<.01$). 각각의 방송사별로 방송시기별 뚜렷한 전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변화 형태는 방송사 모두 비슷하였다. 취재원 출처와 관련하여 사고발생 72시간 전후 및 세월호 침몰 전후 모두에서 '구조자/유가족'의 비율은 줄어든 반면, '중앙정부'와 '일반시민/학생/종교인'의 비율은 늘었다.

방송 3사 모두 특보 방송으로 인해 뉴스 시간은 늘어났지만 재난방송 특성상 취재원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사고 초기(사고발생72시간 전, 세월호 침몰 전)에는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구조자와 유가족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거나 동일한 취재원이 다른 아이템에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사고초기 '구조자/유가족' 인터뷰가 많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시민/학생/종교인’ 유목이 사고이후(사고발생 72시간 후, 세월호 침몰후)에 늘어난 이유는 생존자 소식을 간절히 염원하던 구조자와 유가족들이 세월호가 완전 침몰 한 이후에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뀌어서 취재진들 또한 구조자와 유가족을 인터뷰하기가 조심스러웠고, 따라서 ‘일반시민/학생/종교인’을 통해 인터뷰를 대체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소 눈에 띄는 부분은 JTBC는 두 방송사와 비교하여 그 변화 형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 주요 취재원의 변화와 동시에 다른 취재원의 변화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방송시기 전후로 ‘전 세월호 선박직원 및 선박직 직원’의 비율은 늘어났지만, ‘기자취재’의 비율은 줄어들었다.

JTBC가 상대적으로 ‘기자취재’ 비율이 줄어든 점은 방송일자별/방송시점별 <표 3-17>에서 보면 JTBC(9.7%)는 72시간 전 정보원 제공 영상을 타 방송사(KBS:24.8%, MBC:34.1%) 보다 적게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72시간 전 영상소스의 한계로 정보원 제공영상을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고 기자취재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72시간 이후에는 카메라기자들이 촬영한 영상을 활용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5. 보도주제 및 보도논조에 대한 분석결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뉴스는 사건의 성격과 중요도 그리고 각 방송사의 뉴스구성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뉴스기사를 생산해 낸다. 이러한 뉴스 기사 형식은 시청자의 사건 내용을 인식하고 파악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최현주, 2012).

다음의 <표 3-21>과 <표 3-21>에서는 세월호 보도관련 방송사간 보도 주제와 세월호 보도관련 방송사간 방송일자별/방송시점별 보도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1) 방송사간 보도주제 분석결과

<표 3-21> 방송사간 보도 주제

(***p<.001, **p<.01, *p<.05)

			방송사-보도 주제								x2	p
			사고종합	사고수습/대책	사고관련 조사	안전대책 점검	사건묘사	휴먼 에피소드	경제/교육계 동향	합계		
방송사	KBS	빈도	25	72	119	25	12	72	3	328	57.004	.000***
		%	7.6	22.0	36.3	7.6	3.7	22.0	0.9	100.0		
	MBC	빈도	56	95	101	27	25	51	4	359		
		%	15.6	26.5	28.1	7.5	7.0	14.2	1.1	100.0		
	JTBC	빈도	65	52	71	9	28	47	2	274		
		%	23.7	19.0	25.9	3.3	10.2	17.2	0.7	100.0		

세 방송사간 보도 주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x2=57.004, p=.000<.001). 전체적으로 방송사간 보도 주제는 주로 '사고관련 조사', '사고수습/대책' 그리고 '휴먼에피소드'로 나타났는데, 그 정도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KBS는 주로 '사고관련 조사', MBC는 '사고관련 조사'와 '사고수습/대책' 그리고 JTBC는 '사고관련 조사'와 '사고종합' 관련 뉴스를 주로 보도하고 있었다.

위의 <표 3-3> 보도영상 주제(대분류)를 보면 '바다사고 현장'이 309(32.1%)로 가장 많았으며, '세월호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소재'가 190(19.7%)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도영상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기에 바다사고 현장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반면에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기존연구[31]와 비슷하게 '사고종합'유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고관련 조사'가 높게 나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각 방송사들마다 사고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고원인에 대해 선박회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궁극적인 책임자로 부각했음을 알 수 있다.[32]

2) 방송시기별 보도방향 분석결과

<표 3-22> 방송사간 방송일자별/방송시점별 보도방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p<.001, **p<.01, *p<.05)

	방송사		N	방송사-보도방향			
				평균(역코딩)	sd	T	P
방송일자	KBS	72시간 전	121	2.72	.915	1.461	.145
		72시간 후	207	2.56	.968		
	MBC	72시간 전	131	2.82	.493	.952	.342
		72시간 후	228	2.75	.746		
	JTBC	72시간 전	92	2.49	.932	.001	.999
		72시간 후	182	2.49	.950		
방송시점	KBS	침몰 전	75	2.68	.961	.633	.527
		침몰 후	253	2.60	.948		
	MBC	침몰 전	85	2.92	.352	3.154	.002**
		침몰 후	274	2.73	.730		
	JTBC	침몰 전	57	2.56	.708	.791	.431
		침몰 후	217	2.47	.995		

31) 기존연구(이성림, 1996; 진양혜, 2003; 이경미·최낙진, 2008, 김희철, 2011; 최현주; 2012; 임연희, 2014)에서는 사건·사고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고종합유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32) KBS <청해진해운 실소유주는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4월 20일)>,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뉴욕·LA 등에 거액 부동산(4월 20일)>, MBC <검경 합동수사본부, 선장 등 3명에 영장청구(4월 18일>, <사라진 선장...세월호 사고 순간에 어디서 무엇 하고 있었나?(4월 18일)>, <세월호 선장 어떤 혐의 적용될까? 고의성 입증되면 '무기징역'(4월 18일)>, JTBC <"선장 포함해 직원 대부분 구원파 신도" 증언 잇따라(4월 23일)>, <유병언 1년전 강영 영상 입수..."돈이 목표가 아니다"(4월 23일)>

방송사간 방송시기별 보도방향(역코딩)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방송일자와 방송시점 전후 거의 모든 방송사에서 상호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방송일자-KBS: t=-1.461, p=.145>.05, MBC: t=-.952, p=.342>.05, JTBC: t=-.001, p=.999>.05, 방송시점-KBS: t=-.633, p=.527>.05, MBC: t=-3.154, p=.002<.01, JTBC: t=-.791, p=.431>.05). 세월호 침몰 전후의 MBC만이 상호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Levene 등분산 검정 결과(F=37.362, p=.000<.00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조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t=-3.154, p=.002<.01), 세월호 침몰 전 보도에 비해 이후 보도가 좀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 보도영상과 뉴스내용의 일치도에 대한 분석결과

기사와 영상의 일치에 대한 Colin(1991)과 Gunter(1980)의 연구에서는 영상과 기사가 일치할 때 가장 기억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영상과 기사 부분이 일치하고 시각부분인 영상이 평범할 경우 이해를 촉진시킨다(김창근, 1989).

다음의 <표 3-23>와 <표 3-24>에서는 세월호 보도관련 방송사간 내용일치도, 방송일자별/방송시점별 내용일치도를 알아보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방송사간 내용일치도 분석결과

<표 3-23> 방송사간 내용일치도

(***p<.001, **p<.01, *p<.05)

구분	방송사	N	방송사-내용일치도			
			평균(역코딩)	sd	F	P
내용일치도	KBS	327	4.21	.740	28.162	.000***
	MBC	360	4.66	.705		
	JTBC	275	4.25	1.158		

방송사간 보도영상과 뉴스내용의 일치도(역코딩)를 살펴보았는데, 방송사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 내에서 상호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F=28.162, p=.000<.001).

KBS와 JTBC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그 정도는 MBC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에서 Waller-Duncan의 다중비교 값을 확인해본 결과, 방송사간 내용 일치도는 KBS와 JTBC가 상호 유사성을 높게 나타내고 있었다.

2) 방송시기별 뉴스내용 일치도 분석결과

<표 3-24> 방송사간 방송일자별/방송시점별 내용일치도

(***p<.001, **p<.01, *p<.05)

	방송사		N	방송사-내용일치도			
				평균(역코딩)	sd	T	P
방송일자	KBS	72시간 전	121	4.04	.841	-3.224	.001**
		72시간 후	206	4.31	.656		
	MBC	72시간 전	132	4.58	.731	-1.595	.112
		72시간 후	228	4.71	.688		
	JTBC	72시간 전	93	3.74	1.481	-5.438	.000***
		72시간 후	182	4.51	.846		
방송시점	KBS	침몰 전	75	3.96	.979	-3.401	.001**
		침몰 후	252	4.29	.636		
	MBC	침몰 전	86	4.60	.816	-.850	.396
		침몰 후	274	4.68	.668		
	JTBC	침몰 전	57	3.68	1.549	-4.251	.000***
		침몰 후	218	4.39	.984		

방송사간 방송시기별 보도영상과 뉴스내용의 일치도(역코딩)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방송일자와 방송시점 전후 KBS와 JTBC만이 상호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방송일자-KBS: t=-3.224, p=.001<.01, MBC: t=-1.595, p=.112>.05, JTBC: t=-5.438, p=.000<.001, 방송시점-KBS: t=-3.401, p=.001<.01, MBC: t=-.850, p=.396>.05, JTBC: t=-4.251, p=.000<.001). 사고발생 72시간 전후 및 세월호 침몰 전후 KBS와 JTBC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Levene 등분산 검정 결과(방송일자-KBS: F=1.053, p=.306>.01, JTBC: F=70.471, p=.000<.001, 방송시점-KBS: F=19.820, p=.000<.001, JTBC: F=46.080, p=.000<.00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조건하-방송일자의 KBS는 등분산 가정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t=-3.154, p=.002<.01), 전체적으로 이전에 비해 이후 보도영상과 뉴스내용이 좀 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 3-16> 세월호 보도관련 방송사간 방송일자별/방송시점별 보도영상 출처를 살펴보면, 사고발생 72시간 전후 및 세월호 침몰 전후 모두 '카메라 기자'의 비율은 늘어난 반면, '정보원 제공'의 비율은 줄었다. 이는 사고발생 72시간 전과 세월호 침몰 전에 '정보원 제공' 영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데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사고 초기에는 영상소스가 부족해 정보원 제공 영상을 뉴스 기사에 맞지 않는 부분까지 무분별하게 반복 사용하기에 보도영상과 뉴스내용 일치도가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7. 초상권 침해에 대한 분석결과

재해시 방송매체가 알권리와 공익이라는 정당성을 근거로 현장에 접근하지만 동시에 재해라는 상황은 자신이 고통 받고 있는 모습이 노출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이성림, 1996).

다음의 < 표 3-26>는 세월호 보도관련 방송사간 초상권침해 보도비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표 3-25> 방송사간 초상권침해 보도비율

(***p<.001, **p<.01, *p<.05)

		방송사-인물식별 유무 A (피해자 구조/구출/이송/치료)			χ^2	p
		인물식별 가능	인물식별 불가능	합계		
KBS	빈도	20	64	84	79.959	.000***
	%	23.8	76.2	100.0		
MBC	빈도	14	74	88		
	%	15.9	84.1	100.0		
JTBC	빈도	54	12	66		
	%	81.8	18.2	100.0		
		방송사-인물식별 유무 B (피해자, 유족 오열/항의)				
KBS	빈도	15	7	22	11.304	.004**
	%	68.2	31.8	100.0		
MBC	빈도	16	18	34		
	%	47.1	52.9	100.0		
JTBC	빈도	23	3	26		
	%	88.5	11.5	100.0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CHOSUN UNIVERSITY LIBRARY

세 방송사간 선정적 보도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보도내용 중 인물식별에 대한 비율을 살펴본 결과, 상호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피해자 구조 등: $\chi2=79.959$, $p=.000<.001$, 유족 오열/항의 등: $\chi2=11.304$, $p=.004<.01$). '피해자 구조/구출/이송/치료'의 경우 KBS와 MBC는 화면 내 인물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반면 JTBC는 인물식별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 유족 오열/항의'의 경우 KBS와 MBC 역시도 화면 내 인물식별이 가능한 경우가 적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JTBC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와 유족의 오열과 같은 선정적인 영상으로 인해 시청률을 높이려는 의도이거나[33] JTBC가 신생방송국으로 아직까지 내부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편집과정에서 모자이크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방송사 내부적으로 영상 데스크들은 편집담당자(촬영기

33) 박기묵(2013)은 영상뉴스 선정성이 뉴스 및 매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종합편성채널(TV조선, JTBC, 채널A)과 지상파 방송(KBS)을 비교하였는데, 종합편성채널의 영상뉴스가 지상파의 영상뉴스보다 선정적이고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편성채널은 시청률을 의식하여 선정적인 보도 기법을 사용하였으나 그러한 영상뉴스가 당장 시청률을 올려주는 것과 달리 뉴스 신뢰도와 미디어 신뢰도를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편집기자)가 유가족과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회복시켜주는 치유적 영상편집을 할 수 있도록 영상편집과정에서 데스킹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4장 결론 및 제언

제 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중심으로 보도영상 주제, 보도영상 출처, 보도영상과 내용의 일치도, 재난보도영상의 인터뷰 유형 등과 보도주제와 보도방향 등의 분석을 통해 각 방송사별로 시기별로 나눠 알아보았다. KBS, MBC, JTBC의 메인 뉴스 아이템 963건을 대상으로 재난보도영상과 뉴스내용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 **연구문제 1 : 세월호 사고와 관련 KBS, MBC, JTBC의 보도영상 주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세 방송사 모두 '바다사고현장' 관련 영상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세월호사고 원인조사 및 책임소재', '분향소 애도/오열', '피해자 구조구출' 관련 영상 순으로 나타났다. '바다사고현장'의 세부항목은 '세월호 선내', '세월호 침몰', '민/관/군 수색', '선수(뱃머리)화면' 영상으로 보도영상주제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이다. '바다사고현장' 영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유는 재난 시 영상소스(카메라기자 촬영영상, 현장중계차, 동영상, 컴퓨터 그래픽(CG) 등 기타화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사고초기에 사고현장을 촬영한 제공영상을 반복 사용했기 때문이다. 방송사간 비교에서는 MBC가 '민/관/군 수색'과 '선수(뱃머리)화면' 영상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사고현장' 다음으로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소재'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과 측근'에 대한 보도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방송시기별(방송일자/방송시점) 보도영상 주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바다사고현장' 영상 비율은 사고 이후(사고발생 72시간후, 세월호 침몰 후) 줄어든 반면, '세월호사고 원인조사 및 책임소재' 관련 영상 비율은 늘었다. 이는 '관-업계 간의 유착관계' 그리고 '재난대책기구의 문제점'에 관한 보도의 증거로 풀이된다. 방송사 비교에서는 방송사별로 방송시기별 뚜렷한 전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변화 형태는 방송사 모두 비슷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도영상은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었으며, 그 변

화는 사고발생 72시간 전후를 비교하면 '바다사고현장' 영상 비율은 줄어든 반면, '세월호사고 원인조사 및 책임소재' 관련 영상 비율은 늘었다.

■ **연구문제 2 : 세월호 사고와 관련 KBS, MBC, JTBC의 보도영상 출처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방송사간 보도영상 출처는 주로 '카메라 기자'와 '정보원 제공'으로 나타났다. 방송사간 비교에서는 '카메라 기자'의 비율은 JTBC가 가장 높았고, '정보원 제공'은 상대적으로 MBC가 높게 나타났다. MBC는 영상소스의 한계로 '정보원 제공' 영상을 관행적으로 사용하였는데 반해 JTBC는 앵커-현장기자의 중계차 방송 참여 비율을 높여서 영상소스의 한계를 대체했음을 알 수 있다.

방송시기별(방송일자/방송시점) 재난보도영상의 출처 변화를 살펴보면, KBS와 MBC는 사고발생 72시간 전후 및 세월호 침몰 전후 모두 '카메라 기자'의 비율은 늘었고 '정보원 제공' 비율은 줄었다. 반면에 JTBC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정보원을 활용하고 있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연구문제 3 : 세월호 사고와 관련 KBS, MBC, JTBC의 보도영상 인터뷰 유형 및 취재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방송사간 인터뷰 유형은 '공식적 인터뷰' 보다는 '비공식적 인터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방송사간 비교에서는 '공식적 인터뷰'의 비율은 KBS가 가장 높았고, '비공식적 인터뷰'는 다른 방송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JTBC가 높게 나타났다. 공식적 인터뷰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취재의 편이성, 정보의 공신력에 대한 신념, 뉴스 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방송사 정보망이나 기자 파견 시스템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취재원 출처에서는 방송3사 모두 '기자취재', '중앙정부', '각계 전문가 및 선박 안전점검 관계자' 등이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KBS가 '각계 전문가 및 선박 안전점검 관계자'가 많은 반면 MBC와 JTBC는 상대적으로 '기자취재'가 많았는데, 그 중 JTBC의 '기자취재' 비중도가 높은 편이었다. 이는 JTBC가 앵커-현장기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방송시기별 취재원 출처 변화를 살펴보면, 사고발생 72시간 전후 및 세월호 침몰 전후 모두에서 '구조자/유가족'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방송 3사 모두 특보 방송으로 인해 뉴스 시간은 늘어났지만 재난방송 특성상 취재원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사고 초기(사고발생72시간 전, 세월호 침몰 전)에는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구조자와 유가족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거나 동일한 취재원이 다른 아이템에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사고발생 초기(침몰전, 72시간 전) '구조자/유가족' 인터뷰가 많이 등장한다.

■ **연구문제 4 : 세월호 사고와 관련 KBS, MBC, JTBC의 보도주제 및 보도방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방송사간 보도 주제는 주로 '사고관련 조사', '사고수습/대책' 그리고 '휴먼에피소드' 관련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주로 '사고관련 조사', MBC는 '사고관련 조사'와 '사고수습/대책' 그리고 JTBC는 '사고관련 조사'와 '사고종합' 관련 뉴스를 주로 보도하였다.

방송사 모두 '사고관련 조사'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각 방송사들마다 사고원인에 대해 사고초기에는 '선박직 직원', 이후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된 보도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도방향도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연구문제 5 : 세월호 사고와 관련 KBS, MBC, JTBC의 보도영상과 뉴스내용의 일치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5>와 관련하여 방송사간 보도영상과 뉴스내용의 일치도 결과, KBS와 JTBC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그 정도는 MBC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BC는 <표 3-4>의 보도영상주제 ㉑(피해자, 유족의 유품, 핸드폰화면, SNS)과 ㉕(컴퓨터 그래픽CG, 글자, 문서, 미니어처) 항목이 <표 3-12>에서 KBS와 JTBC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㉑과 ㉕항목은 대부분 보도영상을 중심으로 설명 또는 묘사하는 기사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MBC 가 보도영상과 뉴스내용과의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방송시기별(방송일자/방송시점)에서는 이전에 비해 이후 보도영상과 뉴스내용이 좀 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과 이후 카메라 기자 비율이 늘어났고 정보원 제공 영상이 줄어든 데서 기인한 결과이다.

■ **연구문제 6 : 세월호 사고와 관련 KBS, MBC, JTBC의 초상권 침해 비율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6>와 관련하여 방송사간 인물식별에 대한 비율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 구조/구출/이송/치료’의 경우 총 238건이었고, 인물식별 불가능(63.0%)이 가능(37.0%)에 비해 보다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피해자, 유족 오열/항의’의 경우 총 82건이었고, 인물식별 가능(65.9%)이 불가능(34.1%)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피해자 구조/구출/이송/치료’의 경우 KBS와 MBC는 화면 내 인물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반면 JTBC는 인물식별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 유족 오열/항의’의 경우 KBS와 MBC 역시도 화면 내 인물식별이 가능한 경우가 적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JTBC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물식별 유무는 화면상에 모자이크처리 유무와 관련이 있다. 카메라 기자는 편집과정에서 피해자의 초상권에 보다 신경을 써서 모자이크 처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JTBC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와 유족의 오열과 같은 선정적인 영상으로 인해 시청률을 올리려는 의도이거나, 신생 방송조직으로 카메라기자 내부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카메라기자들의 모자이크 처리에 대한 부주의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

제 2절 결론 및 함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종편), 보도전문 채널 등이 정규편성 프로그램 대신 뉴스특보체제로 전환하였는데, 이렇게 뉴스특보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방송에서 필수조건인 영상이 필요하다. 특보의 생명인 신속성과 현장성을 리얼타임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난발생과 진행상황에서의 영상소스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어느 방송사가 영상소스를 먼저 확보하느냐에 따라 1보(최초속보)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은 방송시간 또는 아이템을 메우기 위해 다각도로 영상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방송사 내부규정이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보원 제공영상, 시청자제보 영상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영상들을 활용하여 방송에 내보낸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경향이 높다.

세월호 침몰 이후 언론단체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보도준칙 세부사항<제5조(피해의 최소화), 제6조(예방 정보 제공), 제12조(취재원에 대한 검증), 제15조(선정적 보도 지양), 제18조(피해자 보호), 제19조(신상공개 주의), 제23조(과거 자료사용 자체)>에서 보듯이 이번 사고 때 각 방송사의 보도영상과 뉴스보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가 대부분 텍스트, 또는 프레임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나 텍스트와 영상이 혼합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면 본 연구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중심으로 뉴스내

용뿐만 아니라 보도영상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본다.

먼저 KBS, MBC, JTBC 보도영상의 특성을 언론 5개 단체 공동 보도준칙에 근거해 비교,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도 준칙 제15조(선정적 보도 지양)의 보도준칙에 의하면, '흥미위주의 보도나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을 선정적 보도' 로 규정한다.

하지만 방송 3사는 '바다사고현장' 영상 <① 세월호 선내 ② 세월호 침몰 ③ 민/관/군 수색 ④ 선수(뱃머리) 화면 ⑤ 리프트 백(풍선)화면> 즉, 가장 극적인 영상으로 분류한 주제를 사고 이전(사고발생 72시간 전, 세월호 침몰 전)과 이후(사고발생 72시간 후, 세월호 침몰 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 MBC 경우는 '선수(뱃머리)'영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선수(뱃머리)'영상은 세월호 침몰 당시 빠져나오지 못한 학생들이 바다 밑에 그대로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간접 경험한 사람들에게까지 상실감과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인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둘째, 제10조(무리한 보도 경쟁 자제)의 보도준칙에 의하면, '언론사와 제작책임자는 속보 경쟁으로 현장기자에게 무리한 취재나 제작을 요구함으로써 정확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방송 3사은 1보 또는 특종을 위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였다. 사고 장소가 바다였기에 현장 접근과 현장 상황 확인은 불가능했고 정부가 제공하는 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제보·제공 화면은 현장을 포착하여 수용자들에게 현장감을 극대화, 생동감 있게 현장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는 영상요소이지만 조작 가능성, 출처의 문제,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화면 위주로 부정적인 시각도 동시에 갖추고 있다. 방송뉴스에서 단순히 현장을 포착한 영상이 흥미롭다고 판단하여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JTBC의 경우처럼, 앵커-현장기자 방송비율을 높여서 '정보원 제공' 비율을 낮추는 것도 영상소스의 한계를 대체 할 수 있는 방안이다. 따라서 제공영상에 대한 철저한 선택의 원칙과 사용의 규범을 두어 뉴스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23조(과거 자료 사용 자제)의 보도준칙에 의하면,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사고의 영상은 해당 사건사고와 관련된 사람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므로 가급적 자제한다.' 라고 규정한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에서 방송사 모두 과거 사건사고 장면이 많이 노출되었다. 과거의 대형사고 장면이 다시한번 방송에 노출 된다는 점은 당시 사고 피해자에게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을 불러 올 수 있다. 방송사들은 순간 시청률을 올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러한 자극적인 영상으로 인해 수용자로 하여금 분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공포, 불쾌감을 일으켜 방송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뉴헤건(Newhagen, 1998),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제18조(피해자 보호), 제19조(신상공개 주의)의 보도준칙에 의하면,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에서 방송사 모두 피해자와 유가족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시켰다. 그 중 JTBC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절망에 빠져 무방비 상태에 놓인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방송사들이 근접 촬영하고 반복적으로 영상을 사용한다는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시청자의 감정에 호소해 방송사의 시청률을 올리려는 수단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방송사 내부적으로 영상 데스크들은 편집담당자(촬영기자, 편집기자)가 유가족과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회복시켜주는 치유적 영상편집을 할 수 있도록 영상편집과정에서 데스킹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재난상황에서 언론이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재해현장을 비 재해지역에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현장의 입장에 서서 재해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한다면 재해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내용은 정당화되기가 어려운 것이다(이성림, 1996).

이와 같이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에서 각 방송사들의 보도영상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이 무분별한 방송 노출, 사전 검증 작업 없이 사용되는 제보·제공영상과 자료영상,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초상권침해로 살펴볼 수 있다. 방송사들은 극적으로 구출되는 탑승객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방송되는가 하면 유가족의 오열과 실신 장면을 클로즈업해 보여주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상황을 재현해냈다. 이러한 '뉴스'(신기하고, 비정상적이며, 이상한 것)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많은 수용자들은 사회에서 무엇이 일상적이고 정상적이며 혹은 일반적인 것인지 거의 판단할 수 없게 되는(Lazarsfeld·Merton, 1948) 즉, 무관심이나 수동적 상태로 전락하여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 KBS, MBC, JTBC 뉴스내용의 특성을 보도준칙을 배경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5조(피해의 최소화), 제6조(예방 정보 제공)의 보도준칙에 의하면, '언론의 역할 중에는 방재와 복구기능도 있음을 유념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와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에서 방송사 모두 뉴스보도 주제에서 '사고관련' 유목이 가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각 방송사들마다 사고 초기에는 사고원인으로 선박직 직원에 대한 집중보도가 주를 이루었고, 이후에 선박회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사고원인의 책임자로 부각했기 때문이다. 사실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지켜야할 방송보도가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병언'이라는 한 인물에게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면서 객관적이어야 할 방송사들이 재난시스템이나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사회 환경 감시 기능을 다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제12조(취재원에 대한 검증)의 보도준칙에 의하면, '재난과 관련해 인터뷰나 코멘트를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뢰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에서 방송사 모두 정부발표에 의존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방송사들의 오보[34]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언론은 재난대책본부나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발표라 하더라도 철저한 자체 조사와 검증을 거치고 유관기관뿐 아니라 전문가와 생존자, 가족, 시민단체, 구조대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취재원을 활용하는 게 사고원인, 책임을 규명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볼 때,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방송3사는 신중함과 절제된 자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속보경쟁,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내용전달 등으로 사회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면서도 차분하게 방재 기능에 충실해야 할 재난방송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화면 구성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방송이 아닌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위한 흥미위주로 보도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만 나온 문제가 아니다.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나 언론들의 재난보도에 대한 비난과 비판, 반성은 계속 되어왔다. 재난보도 준칙의 필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재난보도준칙은 과거나 지금이나 존재하고 있었다. 기자들의 고백하듯이[35] 재난보도준칙을 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관련 조항을 숙지하지 않는 이상 본 연구의 보도영상에 대한 문제점은 공염불로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시청자들을 위한 보도영상이 아니라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차분한 보도영상을 위해서는 기자들의 전문적인 교육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방송사 자체적으로 정보원 제공영상에 대한 내부규

34) KBS는<구조 당국 선내 엉켜있는 시신 다수확인(4월 18일)>, MBC는 <학생전원구조(4월 16일)>, JTBC는 이종인 대표"다이빙벨 20시간 연속작업 가능"(4월 18일)>등 오보를 생산해 냈다.

35)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취재했던 기자들조차 "재난보도현장기자로서 재난보도의 준칙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이 준칙조차 제대로 한 번 읽어보지 못한 상태였다.", "보도국의 방침 아래 움직이려 노력했지만 간혹 실종자 숫자나 수색 상황 등 정부 발표를 보완 취재 없이 보도하기에 바빴던 측면도 있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체계화되지 않았다." 등의 고백을 한 바 있다(한국소통학회, 2014).

정과 매뉴얼을 만들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의 선별을 거쳐 보다 객관적인 영상을 방송해야 할 것이다.

제 3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선정의 한계와 조사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보도에서는 지상파 방송(KBS, MBS, SBS), 종합편성채널(TV조선, 채널A, JTBC, MBN), 보도전문채널(YTN) 등 모든 방송사가 연일 특보방송체제로 방송을 하였는데, KBS, MBC, JTBC 방송사만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연구하였기에 여러 방송사들과 방송보도에 대해 비교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중간 수사발표가 7월 22일이고 최종 수색 종료가 지난 11월 11일인데도 불구하고 조사기간을 사고 발생 후 열흘로 제한한 부분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정확히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보도영상 주제 유형의 조작적 정의가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한계는 벗어날 수 없다. 향후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조작적 정의를 규정하여 보다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셋째, 세월호 방송보도 중에서 기자 토론 및 대담 형식, 기자 스튜디오 참여 형식의 뉴스 아이템을 본 연구에서 제외시켰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후속 연구에서 보도영상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여 보다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이 같은 문제들을 보완하여 후속연구에서 보다 많은 표본 수를 확보하고 세분화한 유목들로 연구를 확장하여 진행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명구(1990). 한국 TV뉴스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분석. TV 뉴스보도, 한국언론연구원.

강진숙(1996). 재난보도의 현실구성방식 연구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관한 tv뉴스보도를 중심으로. <언론연구>, 5호, 117-146.

김경환(2014). 정보량만 많고 정확한 보도는 드물어. <신문과 방송>, 5월호, 06.

김대홍(2011). 일본 NHK의 재난보도 시스템 심층분석. <관훈저널>, 통권 제119, 18-24.

김대회(2011). 한일양국의 재난방송 시스템의 문제와 발전 방안. 제17회 한일 국제심포지엄 발제문, 167-169.

김여라(2011). 일본 대지진을 통해 본 재난방송의 현황 및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김중배(2010). 현장성과 속보성이 강점 언론사 취재 시스템 한계 보완. <신문과 방송>, 7월호, 79.

김원용(1991). 위기보도 분석: 걸프전 보도를 중심으로. <방송연구>, 여름호.

김희철(2011). 천안함 사건에 관한 방송보도 비교연구 : 방송 3사 메인뉴스 보도문장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창남·김아영(2014). 세월호 보도로 불신 확산...언론 신뢰도 시험대. <관훈저널>, 여름호, 38.

고영철(2003). 지역현안 보도경향과 개선방안 : 제주국제자유도시 쇼핑아울렛 유치 관련 논쟁을 중심으로. <동서언론>, 제8집, 71-107.

박경숙·이관열(2013). 매체 이용과 매체 신뢰 및 공정성 인지에 관한 연구: 대학생들의 천안함 침몰 사건 서베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52집 2호, 324.

박관우(2009). 시청자동영상 제보의 활용에 따른 텔레비전 뉴스생산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기묵(2013). 영상뉴스 선정성이 뉴스 및 매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 방송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사이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덕춘(2006).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의 영상표현기법 분석 : 카메라기자와 VJ의 영상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6 No.8.

박치형(2001). 텔레비전 영상의 수용 유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박형철(2008). 지역tv방송 뉴스의 내용과 영상의 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대전 지역 방송3사 분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방문신(2014). 세월호 재난보도가 남긴 과제와 교훈. <관훈저널>, 여름호, 13-25.

백선기(2003a). 한국 언론의 미국이라크 전쟁 보도 경향 분석 : TV 보도영상의 의미구조와 서사구조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제15권 1호, 117-158.

백선기(2003b). TV 보도 영상의 서사구조과 의미구조 9.11 참사 보도의 영상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언론정보학보>, 통권20호, 57-109.

백선기(2012). 재해방송 보도에 대한 국가별 채널간 보도 태도 분석.

백선기·이옥기(2012). 보도준칙을 통해서 본 한국 언론의 재난보도.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8권, 7-48.

백선기·이옥기·이경락(2012).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국가별 보도태도의 비교연구. <한국언론학회> 정기 학술대회.

백선기·이옥기(2013). 재난방송보도에 대한 국가별 채널 간 보도태도의 비교연구 : KBS, NHK, CNN의 일본 대지진 방송보도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7권 1호, 272-304.

배선영·박수정(2014). 세월호 침몰 다룬 KBS MBC SBS JTBC 저녁뉴스 비교 ⑤자극적 영상 사용 여부. http://tenasia.hankyung.com/archives/246469

송종길(2003). 대구지하철 화재관련 뉴스보도 분석. <방송문화>, 제262호, 18-21.

송종길·이연·조원철(2004). 재난방송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 여름철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서울: 방송위원회.

심 훈(2005). '쓰나미'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이야기 구조 서사 분석. <한국언론학보>, 49(6), 286.

양영신(2012). 일본대지진 보도에 대한 방송사의 뉴스 프레임 분석연구 : KBS, MBC, SBS 메인뉴스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용철(2009). 보도영상 현장매뉴얼.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양희진(2014). 지역맞춤형 재난보도 매뉴얼 구축에 관한 연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해외연수 보고서.

오대영(2014). 주관 언론사 중심 취재 또는 공동 취재단 활용. <신문과 방송>, 6월호, 23-27.

오명환(2009). 텔레비전 생(生)영상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에 관한 연구. <시각디자인학연구>, 30호, 10-22.

유승관·강경수(2011). 세계 뉴스통신사의 재난·재해 뉴스보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구. <방송통신연구>, 통권 제76호, 144.
윤재홍(1998). <TV뉴스 취재에서 보도까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95.
이경미·최낙진(2008). 태풍 “나리” 관련 제주지역의 재난방송보도 연구. <언론정보연구>, 45(1), 97-129.
이민규(2011). 재난 보도 어떻게 해야 하나 : 한·미·일 재난보도 비교와 재난보도 원칙을 중심으로, <관훈저널>, 여름호.
이병종(2007). 주한 외국특파원의 북한 핵 관련 보도에 드러난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성림(1996). 재난보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삼풍백화점 붕괴관련 TV뉴스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승선(2011). 신문제목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 <사회과학연구>, 22권 2호, 23-51.
이윤성(2013). 텔레비전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뉴스 분석 : 구성요소와 서사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승열(2004). TV 재난 보도 영상의 기호학적 연구 : 대구지하철참사 보도영상의 약호 분석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 연(2008). 재난보도와 취재안전 시스템. 재난보도 전문인력과 전담 조직을 구성 필요. <신문과 방송>, 5월호 453호, 70-73.
이 연(2011a). 동일본 대지진으로 본 한·일 재난방송 시스템 : 재난방송 전문 인력 육성과 전담 조직 구성 필요. <신문과 방송>, 9월호, 20-23.
이 연(2011b). 동일본 대지진에서 나타난 NHK와 KBS의 재난방송 비교, <한국방송공학회>, 하계학술대회, 144.
이 연(2014). ‘신속 정확, 피해자중심, 인권 보호’ 3원칙. 세월호 참사보도 문제점과 재난보도 준칙 제정 방안 토론회 발표. <신문과 방송>, 5월호, 15-18.
이종수(1999). 텔레비전 뉴스영상 구성 : 한국 텔레비전 뉴스의 시각적 이미지와 언어적 텍스트의 연관성 분석, <한국방송학보>, 제12권(1999.5), 219-252.
이종수(2008). 시민제보 UCC의 영상저널리즘적 특성 : CNN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6-1호, 55-93.
이재승(2011). 아리랑국제방송 뉴스에 나타난 제주지역 이미지. 제주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이지현·고영철(2010). 지역방송 tv뉴스 영상구성 관행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지상파 tv뉴스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0권 제1호, 202-241.
이진로(2014). 세월호 침몰사건 언론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소통학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준웅·황유리(2004). 한국형 방송뉴스도식의 발견 : 뉴스의 내용적이며 구성적 특성과 뉴스제작시스템. <한국방송학보>, 통권 18-3, 232-292.
이창훈(2008). TV뉴스 영상구성 특성에 대한 시청자 인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창현(1995). 재난에 대한 한일간 방송보도 비교 연구. 한국방송개발원.
이행원(1999). <취재보도의 실재>, 서울: 나남.
임연희(2014). 세월호 참사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행태. <사회과학연구>, 25(4), 179-201.
임영호 외(2013). <책, 텔레비전을 말하다>. 컬처룩.
정민환(2012). 방송뉴스의 영상구성형식에 따른 수용자 인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수영·구지혜(2010). 지상파TV 뉴스의 다양성 및 중복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4권 5호, 415-455.
정연구(1995). kbs를 상시 방재기관으로, 재난보도 준칙 마련의 필요성. <신문과 방송>, 통권297호, 4-34.
정은하(2008). 텔레비전 뉴스 시청자의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TV뉴스의 사건사고 보도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태철(1995). 제목 소비자의 증가와 신문 제목의 이해도. <한국언론학보>, 제33호, 203-228.
지성우(2011). 재난 관련 방송의 올바른 방향 모색. 방송통신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진양혜(2003). 텔레비전의 재난보도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성용(2011). 제보영상이 영상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민재(2005). TV뉴스의 영상구성에 대한 패러다임 연구: TV카메라기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방송연구>. 여름호, 323-349.
최이정(2004). <영상제작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최정호·강현두·오택섭 공저(1999). <매스미디어와 사회>, 서울: 나남출판, 147.
최중억(2013). 19대 총선 TV뉴스 프레임 구성의 특징에 관한 연구 : MBC, SBS, TV조선의 저녁 메인뉴스 영상과 육성(사운드바이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최창섭(1983). <TV무용론>, 195-196.
최현주(2013). 텔레비전 뉴스의 재난보도에 관한 연구 : 2000년대 주요 태풍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언론재단(2001). 저널리즘평론 우리 언론 속에 미국 지방. 통권17호, 서울: 한국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언론재단.
홍은희(2014a). 한국 재난보도의 과제. <관훈저널>, 여름호, 26-45.
홍은희(2014b). 취재 앞세운 불손함은 금물, 현장 데스크 필요. <신문과 방송>, 6월호, 19-22.
황 근(2014). 세월호 참사 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자유경제원>.

2. 외국문헌

Bourdieu, P.(1990). Photography : A middle-brow art. English Transl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Colin, B., Brosius, H., (1991). Multiple Effects of Visual Format on TV News Learning,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vol 5 ; 519-528.
de Vreese, C. H,(2004). The effects of frames in political television news on issue interpretation and frame salience,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1(1), 36-52.
Frits, c. (1961). Disaster.Social Problems. Edites by Merton, R. and Nisbet, R. New York: Harcourt Brac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Gans, H. (1979). Deciding what's new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Gunter B., (1980). Remembering television news : effects of picture content.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02 : 127-133.
Herbert Zettl(2001). Sight, Sound, Motion - Applied media aesthetics. 박덕춘, 정우근 번역, 영상제작의 미학적 원리와 방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Julianne H. Newton(2006). The Burden of Visual Truth. 허현주 번역, 영상저널리즘의 이해, 눈빛, 261.
Lazarsfeld, Paul, Bernard Berelson, and Hazel Gaudet. "The People's Choice. New York, 1948." Lazarsfeld P., Merton R.
Newhagen, J. E.(1998). TV news images that induce anger. fear and disgust: Effects on apprach-avoidance and memory.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 42. No. 2. 265-276.
Paul Martin Lester(2003). Visual Communication. 임영호 번역(2006). 영상커뮤케이션, 청문각.
Schudson, Micheal(1995). The power of new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Tuchman, G.(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The Free Press.

3. 웹 사이트

한국방송(KBS) http://www.kbs.co.kr
문화방송(MBC) http://www.imbc.com
중앙일보 종합편성채널 http://jtbc.joins.com
방송통신위원회, '효율적인 재난방송 실시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dc=K00000001&boardId=1113&boardSeq=40219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실시한 방송사 신뢰도 조사
http://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82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Broadcasted Images on the Sinking of MV Sewol
- Focused on Combined News at KBS ·MBC ·JTBC-

Jin-Hyeon Ko
Dep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Jeju National University

Disaster broadcast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media to the public upon an occurrence of a disaster. The public expects disaster broadcasts to perform the function and role as a means of delivering information for the prevention and handling of disasters. However, the form of reports on the sinking of the MV Sewol presented by broadcasting companies remained at the level of displaying all the problems in the past, because each broadcasting company did not consider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interest of broadcasted due to the pursuit of the rapidity of news reporting in the excessive competition of agenda setting.

This study has intended to examine an inductive method of the inflammation of disaster reports on the disaster report of the MV Sewol constantly proposed upon the past occurrences of large disasters due to the adherence of rules of disaster reports.

To achieve this, this study has examined how KBS and public broadcasting MBC, and comprehensive programming channel JTBC night news, which covered the disaster, reported the sinking of the MV Sewol in general, with respect to standard properties of broadcasting reports. Further, this study has categorized and analyzed the consistency of the theme of broadcasted footage, source of broadcasted footage, type of interviews, difference in sources, and the content of news and broadcasted footage between the broadcasting companies. Lastly, the difference in the

reported theme and reported direction between broadcasting companies were compared and a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on whether the portrait rights of the victims and families were infringed.

This study, which relates to the MV Sewol, has analyzed a total of 963 videos for 10 days from April 16 to April 25, and the highest frequency of broadcasts were reported by 'MBC' (37.4%), followed by 'KBS' (34.1%) and 'JTBC' (28.6%). The theme of the broadcasted footage mostly handled the 'disaster site'. The detailed categories of the 'disaster site' included 'the interior of the Sewol', 'the sinking of Sewol', 'private/military/governmental search', and 'the bow of the ship', wherein the most stimulating and selective footage used was focused on interest.

The sources of broadcasted footage mainly included 'camera reporters' and 'source providers'. The proportion of JTBC 'camera reporters' was the highest, and the proportion of MBC 'source providers' was relatively high. Videos supplied by source providers were customarily used by broadcasting companies due to the availability of video footage. The broadcasted footage and content of news were generally consistent with the use of computer graphics, documents, and miniature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With respect to the source of reporters, 'reporter coverage' was the highest method, followed by 'the central government'. Due to the method of 'reporter coverage', interview forms mainly consisted of 'unofficial interviews' rather than 'official interviews'. Among the three broadcasting companies, JTBC displayed the highest level of 'reporter coverage', which is the result of the high proportion of anchor-site reporter, which has resolved the difficulty of casting a source at the disaster site, with on-site reporting (anchor-site reporter). The method of the 'central government' is the second highest in regard to the source of reporters, due to the confidence of information and the convenience of reporting.

With respect to the theme of reporting, all three broadcasting companies presented 'disaster-related research' as the highest theme, because each broadcasting company focused on reports related to 'ship employees'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disaster and reports related to the 'former president of Semo Group, Mr. Byung-Eon Yoo' after the disaster. Thus, the

broadcasting direction was naturally negative on the whole. With respect to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all three broadcasting companies mainly displayed reports wherein the victims and families could be distinguished, with JTBC occupying the highest level of displaying portrait rights among the broadcasting companies.

In conclusion, the broadcasted image of the sinking of the MV Sewol was comprised of selective footage not for the victims or the families but for the viewers. This is deemed to be due to the reporters, who do not have the experience of reading disaster report rules not have the full knowledge of related terms. Accordingly, five media corporations have prepared a set of joint disaster reporting guidelines as a reflection on such problems.

The influence of TV news is relatively great in comparison to other media, and thus, the acknowledgement of the recipients depends on how a disaster is reported, and which aspects are selected and emphasized. Therefore, the broadcasting companies must concentrate on the role as an information provider through fair and rational reporting that considers the victims and the families based on the media ethics code and adherence of the reporting rule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Keywords : Sinking of the MV Sewol, the theme of broadcasted images, the source of broadcasted images, rules of disaster reports

<부 록: 코딩지>

1. 보도영상 분류

1) 방송사명 ① KBS ② MBC ③ JTBC

2) 방송일자 ① 4/16(수) ② 4/17(목) ③ 4/18(금) ④ 4/19(토) ⑤ 4/20(일)
⑥ 4/21(월) ⑦ 4/22(화) ⑧ 4/23(수) ⑨ 4/24(목) ⑩ 4/25(금)

3) 방송일자 ① 72시간 내 ② 72시간 후

4) 방송시점 ① 침몰 전 ② 침몰 후

5) 아이템 번호 ( )

6) 아이템 길이 (초)

7) ① 총 영상 컷 수 ( ) ② 선택 영상 컷 수( )

2. 보도영상 내용

1) 선택 영상 순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① 1순위(/컷수) ② 2순위(/컷수) ③ 3순위(/컷수)

2) 보도영상 주제

(1) 사고현장 : ① 세월호 선내 ② 세월호침몰/선외(세월호포함- 헬기샷, 바다샷)
③ 민/관/군 수색(세월호 미포함) ④ 선수(뱃머리) 화면 ⑤ 리프트 백(풍선)화면

(2) 피해자 구조/구출/이송/치료 (인물식별 유무 ⓐ가능 ⓑ불가능)
⑥ 탑승객 구조/구출(침몰현장 구조/구출) ⑦ 구조자 이송(진료/치료)
⑧ 희생자 이송

(3) 재난사고수습 및 대책: ⑨ 정부 측 (회의/기자회견/브리핑) ⑩ 청해진 해운 측 (회의/기자회견/브리핑) ⑪ 유족 측 (가족대책본부, 항의 방문)

(4) 재난사고 원인조사 및 책임규명: ⑫정부 및 관련기업 관리소홀(과적/안전점검)
⑬세월호 관계 회사 압수수색/직원조사 ⑭유병언 초점 관련조사/가족포함(생가, 갤러리, 국내외 부동산, 소유회사, 구원파) ⑮기타( )

(5) 세월호 사고 여파/영향: ⑯ 단원고(등교, 교실, 탁구선수, 교감자살 등) ⑰ 경제적 여파(동네 울상, 여행취소, 스미싱 피해)

(6) 분향소/오열/애도의 물결: ⑱ 국내 분위기(분향, 영결식, 추모) ⑲국외 분위기(분향, 영결식, 추모) ⑳ 피해자, 유족 오열/항의(인물식별유무 ⓐ가능 ⓑ불가능) ㉑ 피해자, 유족의 유품, 핸드폰화면, SNS.

(7) 구호 및 지원 활동 : ㉒ 각종 물자 지원/ 기부금 모금운동 ㉓ 현장 자원봉사활동

(8) 자료화면: ㉔ 세월호 침몰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화면(천안함사고, 씨랜드화재, 성수대교붕괴, 미국9.11테러, 세월호 유사 선박 등) ㉕ 컴퓨터 그래픽 CG, 글자, 문서, 미니어처 등.

(9) 기타: ㉖ 팽목항 방문(대통령, 총리, 정치인 등) ㉗ 유가족(먼 산 바라보는/체념) ㉘ 일반적인 팽목항/ 진도 체육관 ㉙ 일반적인 항구(유람선/선박 입출항, 사람들 탑승) ㉚ 기타 (타 유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보도영상의 출처

(1) 영상출처 순위 ① 1순위 ( ) ② 2순위 ( ) ③ 3순위( )

① 카메라 기자 ② 정보원 제공 ③ 시청자 제보/선원 제보

④ CG ⑤ 기타영상

4) 취재원 출처

(1) 인터뷰 유형 ① 공식적 INT. ② 비공식적 INT

(2) 취재원 출처 순위 ① 1순위 ( ) ② 2순위 ( ) ③ 3순위( )

① 중앙정부 ② 국회/정당 ③ 각계 전문가 및 선박 안전점검 관계자

④ 전/현 청해진 해운 측 및 해운조합관계자 ⑤ 민간구조대 ⑥ 구조자/유가족

⑦ 선박직 직원 ⑧ 사회단체, 자원봉사 및 학교 관계자

⑨ 일반시민/학생/종교인 등 ⑩ 외국인 ⑪ 기자취재

⑫ 유병언 관계(장남, 차남, 측근) 및 영농조합 관련 등 ⑬ 기타

3. 보도 주제 내용

1) 주제별에 따른 분류

① 사고종합(사고개요/피해) ② 사고수습/대책 ③ 사고관련 조사

④ 안전대책 점검 ⑤ 사건묘사 ⑥ 휴먼에피소드 ⑦ 기타

2) 보도 방향 ① 긍정 ② 대체적 긍정 ③ 중립(긍정과 부정 병렬)

④대체적 부정 ⑤ 부정

3) 보도영상과 뉴스내용의 일치도

① 매우 일치한다 (100-80%) ② 어느 정도 일치한다 (80-60%)

③ 보통이다 (60-40%) ④ 어느 정도 불일치한다 (40-20%)

⑤ 매우 불일치한다 (20-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 록: 보도영상 컷(Cut) 분류>

①야간현장수색 화면 ②스튜디오참여 화면 ③인터넷 화면 ④정부 안행부 브리핑, 정부 관계자 회의, 대통령 회의, 정홍원 총리 회의 화면 ⑤해경 브리핑화면 ⑥기자 질문화면(녹취 아무 대답 없음) ⑦수면/수중 절반 화면 ⑧기사 설명을 뒷받침 해주는 자료화면(갯벌) ⑨2분할화면, 4분할화면, 디졸브화면 ⑩기자 on-mic 화면 ⑪해상 크레인(인양준비)화면 ⑫앵커 화면(현장 중계차), 현장 생중계 화면 ⑬버츄얼 스튜디오(virtual studio) 화면 ⑭대통령 현지방문, 선박 타고 침몰현장 답사 화면 ⑮단원고 교실(학생들 리본달고, 포스티지 붙이는)화면 ⑯단원고 교감 숨진채 발견(그림 없어 숲 화면 대체)화면 ⑰편지글, 엽서글 화면 ⑱유가족(망연자실, 서성이는, 오열 등)화면 ⑲단원고 탁구 선수(탁구치고, 상 받으며 눈물 흘리는 화면)화면 ⑳다른 고등학교 자료화면(등교, 체육활동 등), 수학여행 화면 ㉑단원고 학생 세월호 승선(CCTV)화면 ㉒실크 CG 화면 ㉓세월호 안전 점검 부실화면. 오하마나호 등 관련 선박 안전 점검화면 ㉔검찰 압수수색 화면 ㉕세월호 대표 기자회견 화면 ㉖청해진해운 사업 자료(수륙양육 택시, 버스)화면 ㉗허위 사실 공표 종편 채널 공식 사과 화면(홍xx 인터뷰화면) ㉘해외 깊은 애도, 지원 관련 화면 (오바마 대통령. 일본총리 등), 방콕현지에도 애도 물결 노란리본 행사 화면. 북한 반응(핵 지하벙커화면, 판문점. 국방위원회 회의화면) ㉙선박에서 음파 탐지기 실행하는 화면 ㉚수색관련(ROV 무인 로봇 탐색, 다이빙 벨)화면 ㉛선박 관제 센터 화면 ㉜경찰청(육. 해경). 검찰청 화면 ㉝해경선박(자료화면)화면 ㉞선적 화물 선박에 들어가는 (자료화면)화면 ㉟항만 자료화면 ㊱선박 내부(침실. 복도 등)화면 ㊲한국 선급 화면. 해양수산부, 한국해운 조합, 해양 항만청 화면 ㊳선박직 직원(선장 기관사 항해사) 검찰 출두, 나오는, 병원에서 들어가는 화면 ㊴연구자와 대화하는 (인터뷰 전에 보통 인서트 컷으로 활용)화면 ㊵국회의원 기자회견 화면 ㊶상징화면(안행부, 관공서, 풀샷 등), 이미지 컷(간판이나 글씨, 명패)화면 ㊷유병언 예전 검찰 출두 자료화면, 갤러리, 건물 소유 화면 ㊸안산시 주민센터(직원들 도시락 전달)화면 ㊹자원봉사자 화면 ㊺대책본부(가족대책본부, 범정부 대책본부 등)화면 ㊻기자 증거 확보(쓰레기 더미)화면 ㊼유병언 생가 헬기 샷(shot) 화면 ㊽산업은행(청해진 해운 불법 자금 관련)화면 ㊾복음침례회 사무국 총무 기자회견 화면 ㊿오바마 대통령 얘기 나올 때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 화면. 한미정상 기자회견 화면. 대한제국 국새 반환 화면. 경북궁 화면 (51)분향소(기다리는 조문객 눈물. 스티커 붙이는. 분향하는 모습)화면 (52)일반시민 눈물, 기도 화면 (53)세월호 과거 CCTV(선적하고 있는)화면,해외 선박 안전 점검. 자료화면 (54)구호품 운반 차량, 운반하는 모습, 구호품 화면 (55)팽목항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서 바라보는 바다 화면 ㊺진도 체육관 (핸드폰 보는 모습, 피해자/유가족 닝겔 맞는 모습, 자원 봉사자 유가족 진료하는 모습) 화면 ㊼여야 세월호 대책회의 화면 ㊽선박직 직원 경찰 조서 받는 화면 ㊾해경과 기자 대화화면 ㊿관광객 유람선 탑승화면 ㊶비슷한 해외선박 사고(침몰 배 화면 탑승자 구출화면등)화면 ㊷영정 사진 운송, 영정사진 CU화면, 장례식장 화면, 운구 차량 이동 화면 ㊸병원 이송 차량. 사체 이송 화면 ㊹병원 외·내경 화면 ㊺실종자 DNA채취 화면, 유가족 DNA채취화면, 천막 외내경 화면 ㊻주변 동네, 시민 스티커 붙이는(세월호 여파)화면 ㊼사진(유족사진, 현장사진, 해외 선박관련 사진, 세월호 관련 외내부 사진, 희생자 사진) 화면 ㊽스미싱 관련(핸드폰 촬영한)화면 ㊾채낚기 어선 자료(바다에 떠 있는 채낚기 어선)화면 ㊿팽목항 민간 잠수부 투입화면 ㊶팽목항에서 기자회견(대책본부)화면 ㊷잠수부들 쉬면서 작업할 수 있는 바지선(부산에서 출발 예정)화면 ㊸기자 앵커 대화 화면/기자화면/스튜디오 참여 화면 ㊹병원 (의사, 간호사, 소방대원, 경찰 등 서성이는)화면 ㊺유병언 얼굴 화면(장남, 차남), 전시회 사진화면 ㊻과거 청해진 해운 어선과 충돌(외·내부)화면 ㊼닫힌 문 두들기는 기자 화면 ㊽타이타닉 자료화면 ㊾팽목항 주변 화면 ㊿임시 영안실, 분향소 준비화면 ㊶공기주머니 화면 ㊷민관군 배 이동 화면 ㊸잠수부 분주한 화면 ㊹바지선 외·내부화면 ㊺크렙스터('게' 모양 무인 잠수 로봇)화면 ㊻국무회의 화면 ㊼단원고 생존자 학부모 기자회견 ㊽세월호와 유사한 사건화면 ㊾영결식 해군 장병 도열(장병 오열 장면, 슬퍼하는 장면)화면 ㊿해외 선박 안전수칙 홍보영상 화면 ㊶세월호 축소 작은 배 실험(일본 교수)화면 ㊷실종자 가족 대표 아닌 화면(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도의원 예비 후보화면 ㊸SNS 컴퓨터 글(재난 상황실 현장판 화면. 일반 컴퓨터 화면)화면 ㊹백악관 화면, 오바마 자료화면, 미 항공모함, 헬기 군화면 ㊺대사관 화면(사진)AHA 단면 화면, 사진 전국도 화면 ㊻유병언 소유 부동산 (구락도 화면-일부가 유병언 소유 부동산/ 해외 부동산)화면 ㊼여객터미널 외·내부 화면(자료화면) ㊽세월호 사고 원인규명 전문가 자문회의 화면 ㊾자율방범대, 택시기사(유가족 수송차량), 자치단체 식사 배급 화면 ㊿유가족 합동 수사본부 관계자와 실랑이, 국무총리와 실랑이 화면 ㊶INT 분류 화면 ㊷핸드폰 영상사진 화면 ㊸단원고 학생 눈물 화면(희생자 친구, 동기, 제자, 지인)화면 ㊹유가족 공식적인 인터뷰 화면(앵커와 마주하고) ㊺팽목항 전경. 헬기 일반적인 풀샷 화면 ㊻유가족 핸드폰 보여주는 화면 ㊼이탈리아 코스카나 해안(선장-경비대장 대화, 선장 도망가는 취재진 엉켜있는 화면)화면 ㊽미국 알래스카주(선박 빙하 충돌 화면, 기름확산, 기름띠 제거화면)화면 ㊾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 폭탄주 파문화면 ㊿민간 다이버 육상에서 장비 점검 및 운반 화면 ㊶세월호 침몰 당시 경찰 간부 졸업식 안행부 장관 참여화면 ㊷기초단체장 술자리 파문 화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